연구보고 09-R04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최창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송병국(순천향대학교 · 교수)
김혁진(모든학교 체험활동연구소 ·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 남화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이영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인턴연구원)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 구 요 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교육정책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 인프라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 분석,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요 교육정책 분석 및 연계 · 협력을 위한 시사점 탐색, 아동 · 청소년인프라와 학교의 연계방안 제시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전문가 포럼(미인계: 미래인재개발계획), 정책협의회 등을 실시하였다.

- 첫째, 아동 · 청소년정책과 학교연계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 분석, 주요 교육정책 분석을 위하여 관련 문헌들을 탐색하였다.

- 둘째, 연계 · 협력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정책과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가 포럼(미 · 인 · 계: 미래인재개발계획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 셋째, 학교와 연계한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인프라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시로 정부와의 정책연계를 시도하였다.

3. 연구결과 및 정책과제 제언

- 첫째,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인프라 학교연계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정책 및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자원봉사제도 등은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 콘텐츠 충실화의 문제, 전형요소로 바로 활용의 어려움, 사무국의 예산과 인력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인적자원연계분야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학교의 폐쇄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설 및 단체분야에서는 상호인식이나 정보의 부족, 프로그램의 질적 문제, 역시 학교의 폐쇄성, 지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 둘째, 연계 · 협력의 기본원칙과 정책과제 개발방향을 설정하였다.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인프라 학교연계의 기본원칙을 동등성의 원칙, 상호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차별성의 원칙, 개방성의 원칙 등 5가지 원칙을 설정하였고, 연계 · 협력을 위한 정책추진과제 설정의 기본방향은 미래지향적 관점의 유지, 실제적인 요구와 수요 중심, 학교지원을 위한 대안제시, 체험활동의 차별성 확보,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 유지, 학교의 특성 이해 우선 등의 6가지로 설정하였다.

- 셋째, 연계 · 협력을 위한 추진과제는 학교내 교육활동지원, 학교밖 체험활동지원, 미래개발지원, 사업화지원체제 등의 4가지 영역을 청소년인프라 자원유형인 인적자원, 기관자원, 프로그램자원 등 3가지 영

역에 맞추어 총 12개 분야 32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32개 세부과제는 학교내 교육과정 운영 연계 · 지원 4과제, 학교내 방과후 교육 운영 연계 · 지원 3과제, 학교밖 체험활동 운영 연계 · 지원 7과제, 지역사회 참여활동 연계 · 지원 5과제, 학교 진로교육활동 프로그램 연계 · 지원 3과제, 청소년의 진로개발 체험활동 연계 · 지원 3과제, 이행전략 · 사업화를 위한 추진방안 7과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넷째, 교육정책과의 연계 · 협력을 위한 현안 추진과제는 지역사회 단위 연계 · 협력 지원 통합운영체계 구축,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시스템 연계, 다양한 청소년활동 통합 기록 · 관리시스템 운영,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자원맵 공동개발, 교육과의 연계 · 협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재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통합 운영,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제도의 체계화 등 7가지를 제시하였다.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5
3. 연구방법 ····· 6

Ⅱ. 선행연구와 시사점 ····· 9
1. 주요 선행연구 내용 ····· 11
2. 시사점 ····· 15

Ⅲ.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인프라 현황과 연계의 문제점 ····· 19
1.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인프라 현황 ····· 21
2.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인프라 학교연계 실태와 문제점 ····· 38

Ⅳ.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분석 및 연계 시사점 ····· 45
1. 미래형교육과정 ····· 47
2. 대학입학사정관제 ····· 56
3. 방과후학교 ····· 64
4. 국가진로교육정책 ····· 73

Ⅴ. 아동·청소년 인프라와 학교의 연계방안 ····· 85
1. 연계 기반의 구축 방향 ····· 87
2. 연계 유형 분석과 과제 개발 모형 ····· 96
3. 연계·협력을 위한 종합 추진과제 ····· 102
4. 연계·협력을 위한 현안 추진과제 ····· 121

Ⅵ. 요약, 결론 및 정책제언 ····· 131
1. 요약 및 결론 ····· 133
2. 정책제언 ····· 135

참 고 문 헌 ····· 139

표 목차

<표 Ⅲ-1>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 ····· 22
<표 Ⅲ-2> 영역별 인증수련활동 현황 ····· 23
<표 Ⅲ-3>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활동영역과 프로그램 유형 ·· 25
<표 Ⅲ-4> 연도별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인원 ····· 28
<표 Ⅲ-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개요 ····· 29
<표 Ⅲ-6>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36
<표 Ⅲ-7> 아동복지시설 현황 ····· 36
<표 Ⅲ-8> 지역아동센터 현황 ····· 37
<표 Ⅳ-1> 미래형교육과정(안) - 초등학교 교육과정 ····· 50
<표 Ⅳ-2> 미래형교육과정(안) - 중학교 교육과정 ····· 51
<표 Ⅳ-3> 미래형교육과정(안) - 고등학교 교육과정 ····· 51
<표 Ⅳ-4> 입학사정관제 공통 전형요소(예시안) ····· 59
<표 Ⅳ-5>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의 방향 ·· 60
<표 Ⅳ-6> 방과후학교의 정책목표 ····· 65
<표 Ⅳ-7> 기존 방과후 교육 활동과 방과후학교의 비교 ····· 67
<표 Ⅴ-1> 주관-장소에 따른 연계사업의 유형(모형) ····· 99
<표 Ⅴ-2> 추진과제 개발의 기본 프레임 ····· 101
<표 Ⅴ-3> 연계·협력을 위한 추진과제 체계 ····· 107

그림 목차

[그림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추진체계 ····· 21
[그림 2] 인증수련활동 지역별 현황(2009년 6월 현재) ····· 23
[그림 3]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절차 ····· 26
[그림 4]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구성도 ····· 27
[그림 5] 청소년지도자의 분류 ····· 32
[그림 6]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 34
[그림 7]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통전형절차(예시안) ····· 58
[그림 8]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추진 방향(2008) ·· 75
[그림 9] 연계·협력의 기본원칙 ····· 92
[그림 10] 연계·협력을 위한 추진과제 설정의 기본방향 ····· 102
[그림 11] 지역사회 단위 연계·협력 지원 통합운영체계 ····· 122
[그림 12]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시스템 연계 방안 ····· 124
[그림 13] 국가등록 통합 청소년활동 기록·관리체계 ····· 125
[그림 14] 청소년활동종합서비스 체계도(안) ····· 126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 ·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과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아동 · 청소년정책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아동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경험, 활동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아동 · 청소년기의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경쟁력 있는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보호 · 규제 · 단속 중심의 소극적 아동 · 청소년정책”에서 “육성 · 지원 중심의 적극적인 아동 · 청소년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면서 아동 · 청소년정책의 범위와 폭을 확대시켜 왔다(청소년위원회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하지만 아동 ·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생이라는 점,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아동 · 청소년활동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는 점, 지역사회 인프라와의 연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학교의 폐쇄성 등이 아동 ·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제7차교육과정의 시작과 함께 아동 ·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일련의 긍정적인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 즉, 제7차교육과정은 학생체험활동의 증대, 주5일 수업제도 실시, 창의재량활동의 강조 등 학교 내에서의 아동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켰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학교현장은 성적중심의 교과위주로 운영되어 인성함양과 관련 있는 체험활동이나 봉사활동은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왔다.

이러한 반성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지금까지의 교육과정과 차별화를 추구하는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병행하는 미래형교육과정을 도

입하여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 미래형 교육과정에는 교과교육 외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정규 교과목화 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입학 시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 국가 진로교육체제 전환 등 국가적으로 주목받는 교육정책 프로그램들이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기존 청소년활동정책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띠고 있다. 심지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지원 없이 이러한 교육정책의 성공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렇듯 아동 ·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연계 · 협력의 대안을 창출하고 쌍방이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나가는 일이 남아있다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계 · 협력의 방향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청소년정책 프로그램, 시설 · 단체, 지도자와 교육정책인 미래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입학사정관제, 방과후학교 등과의 연계 ·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 · 협력체제가 미비한 원인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의 균형감 부족,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설 실무협의기구 부재,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에 대한 인식과 지식 부족,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파트너십 부족 등이 제시될 수 있다(이민희 외, 2005).

이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련의 선행연구들(한국청소년개발원 편, 1995; 천정웅 · 김정주, 1999; 조영승, 1999; 이민희 외, 2005)은 아동 ·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해주고 있어 나름대로 학문적인 체계 확립과 실제성에 있어 큰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천 방법적인 측면에서 구체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곧바로 정책화하기는 힘들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 및 프로그램 분야, 인적자원 분야, 시설 및 단체

분야별로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 인프라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활용방안의 모색은 학교와의 연계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①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②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 분석, ③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요 교육정책(미래형 교육과정, 입학사정관제, 방과후학교, 국가진로교육정책 등) 분석 및 연계 · 협력을 위한 시사점 탐색, ④ 아동 · 청소년인프라와 학교의 연계방안 제시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와의 연계 측면에서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 인프라 활용방안 및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 분석,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요 교육정책분석 및 연계 · 협력을 위한 시사점 탐색, 아동 · 청소년인프라와 학교의 연계 · 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등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 · 청소년정책과 학교연계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주요 선행연구 내용분석
  - 시사점 도출

○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정책 및 프로그램 분야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인적자원 분야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시설 및 단체 분야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주요 교육정책 분석 및 연계 시사점 탐색

- 미래형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 분석 및 연계 시사점 탐색
- 입학사정관제 분석 및 연계 시사점 탐색
- 방과후학교 제도 분석 및 연계 시사점 탐색
- 국가진로교육정책 분석 및 연계 시사점 탐색

○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인프라와 학교의 연계 · 협력 정책방안 제시
- 연계 · 협력 기반 구축 및 모델 개발
- 연계 · 협력을 위한 종합 추진과제 제시
- 연계 · 협력을 위한 현안 추진과제 제시

3. 연구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전문가 포럼(미인계: 미래인재개발계획) 개최, 정책협의회 등을 실시하였다.

첫째, 아동 · 청소년정책과 학교연계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 인프라 현황(정책 및 프로그램 분야, 인적자원 분야, 시설 및 단체 분야 등)과 문제점 분석, 주요 교육정책(미래형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입학사정관제, 방과후학교 제도, 국가진로교육정책) 분석을 위하여 관련 문헌들을 분석하였다.

둘째, 연계 · 협력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정책과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전문가 포럼은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이 공동으로 아동 · 청소년들을 미래인재로 개발할 필요성에 착안하여 「미 · 인 · 계(미래인재개발계획) 전문가 포럼」으로 명명하였다.

포럼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포럼 구성원은 청소년정책연구를 수행

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청소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담당 과장,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입학사정관제를 시행·지원하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담당 팀장,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관련 팀장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무총장, 관련 교수 및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포럼은 총 3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첫 번째 포럼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도와 입학사정관제 및 미래형교육과정과의 연계·협력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두 번째 포럼에서는 미래형교육과정의 창의적체험활동과 대학진학을 위한 입학사정관제와 비교과활동 관리 시스템 연계·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뤘다. 세 번째 포럼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활동진흥계획, 진로교육종합계획, 미래형교육과정 등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셋째, 학교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인프라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들과의 정책협의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였다. 여기서 전반적인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논의하였다.

Ⅱ. 선행연구와 시사점

1. 주요 선행연구 내용
2. 시사점

Ⅱ. 선행연구와 시사점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 방안 모색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주요 선행연구 내용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는 그렇게 많이 수행되지 못하였다. 여기에서는 이 연구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선행연구들인 이민희 외(2005), 조영승(1999), 최상덕(2006), 양철승(2006), 한상철 · 이채식 · 이상진(2007), 김정배 외(2001), 전희일(2003), 김재일(2004) 등의 연구내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방안 연구(이민희 외, 2005)

이 연구는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의 초점은 청소년활동분야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비 연계성에 대한 고찰,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 · 협력 현황 평가,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 · 협력 사례,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학교교육정책의 개선방안 등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실태조사, 델파이조사, 전문가워크숍 등이며, 연구의 결과 연계 · 협력을 위한 상설 실무협의체 구성, 연계 · 협력을 위한 수평적 의사소통, 연계 · 협력의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연계 · 협력을 위한 법 · 제도의 개선 및 예산항목 신설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연계 · 협력에 대한 방대한 연구를 수행한 점, 실제 연계 · 협력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 점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곧바로 정책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에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2) 청소년육성과 교육분야의 연계협력 실태와 개선방안(천정웅 · 김정주, 1999)

이 연구는 청소년육성과 교육분야의 연계협력 실태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육성정책과 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활동영역 비교,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 단체의 연계협력실태 분석, 청소년육성과 교육분야 연계협력 방안 모색 등이며,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태조사였다.

연구의 결과 교사 및 청소년의 청소년육성정책분야, 관련법령, 물적 · 인적자원, 사업과 프로그램, 시설 및 프로그램 인지도 등이 낮은 상태이며, 청소년육성정책과 교육정책 간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상호 협조관계는 미흡하게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체계적 연계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부처, 지역사회, 현장 수준에서 상설업무협의회 등의 제도적 장치와 상호 이해를 위한 다양한 정보 보급 및 교육 · 연수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육성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제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3) 청소년육성정책과 학교교육 연계의 방향(조영승, 1999)

이 연구는 청소년육성정책과 학교교육의 연계방향을 고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어원적 · 역사적 · 제도적 고찰과 내용, 청소년육성과 학교교육 특성비교와 학교교육의 한계성 논의, 청소년육성정책과 학교교육 연계방안 모색 등이며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였다.

이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시간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제도의 실질적 개혁 단행이 필요하고, 청소년이 유익한 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져야 하며, 청소년육성정책은 학교교육이 담당하지 못하는 세밀하고 과학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교 밖의 청소년복지·환경·문화·문제·상담에 관한 정책을 통해 학교교육의 사회적 기반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혁신과정에 청소년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의 공동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도 학교밖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방향 잘 제시해 주었으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에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4) 변화된 학교교육환경과 청소년단체활동 추진방향(최상덕, 2006)

이 연구는 교육과 관련한 OECD 및 한국 교육의 변화전망을 비교하고, 학교교육 정책 변화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문헌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청소년을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청소년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의 창조적 개발을 통해 방과후 학교를 올바른 방향으로 활성화하며, 청소년단체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단체활동 측면에서 연계협력 방향을 바라보았으며, 큰 전략들은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은 미흡하였다.

5) 학교내 청소년단체활동의 도전과 개선방향(양철승, 2006)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학교내 청소년단체의 현실 분석,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단체가 지향하는 본래 목적의 수행방안 제시 등이며,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교육청과 연계 강화를 통한 청소년단체 지도자 육성을 지원하고,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을 대비하여 지역사회 연계 활동 지원 네트워크 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단체 간 사업영역의 전문화와 기능분담 전략과 지역 내 기관 및 기업 등 다양한 연계를 통한 효과적

인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도 선언적 의미가 강하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에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6) 청소년활동 시설 및 지역사회 방과 후 활동 연계 프로그램 개발(한상철·이채식·이상진, 2007)

이 연구는 청소년시설에서 이뤄지는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실태 파악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청소년활동 시설 이용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개발 요구 분석,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지역 청소년시설 및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방향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실태조사,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주5일제 시행이 실제적인 청소년의 건강하고 전인적인 발달과 능력개발을 이루기 위해 학교교육과 청소년(활동)분야를 연계하는 정책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고, 청소년시설에서 진행하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다양한 욕구실현과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내부 및 외부의 청소년관련 시설간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 역시 큰 방향을 제시할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에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7) 청소년 자원봉사 연계협력 증진방안 연구(김정배 외, 2001)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정부부처 자원봉사 정책현황과 연계협력 현황 분석, 청소년자원봉사 연계협력 실태와 문제점 분석, 외국의 청소년자원봉사 연계협력 사례분석,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제시 등이며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설문조사, 전문가자문회의, 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 관련 부처 간의 문서합의의 선행, 정책의 공동기획과 연구개발, 청소년봉사활동 실무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 공동사업 추진과 자금투여 등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청소년자원봉사 연계방안에 대한 전략 제시하였다는 점이 긍정적이지만 역시 선언적인 내용이어서 구체적인 실행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8) 청소년수련관 수련활동과 학교 특별활동의 연계 필요성에 관한 연구 (전희일, 2003)

이 연구는 학교특별활동과 지역 청소년수련관 수련활동 연계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수련활동과 학교 특별활동의 연계 필요성을 제시하고, 더불어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연계방안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지역사회 허브 역할을 하도록 인력을 양성하고, 학교와의 연계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지역공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연계의 체계적인 방법보다는 연계의 필요성에 관련된 연구로써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9) 창의적 재량활동과 청소년수련관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김재일, 2004)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수련관과 재량활동 연계방안이며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실태조사, 사례조사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창의적 재량활동과 청소년수련과 프로그램의 연계를 위하여 학교 밖 전문인력 활용, 시설 및 프로그램 리모델링,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도 역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선언적인 내용이라는 한계가 있다.

2. 시사점

선행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학교교육정책과 아동 · 청소년정책이 연계되어야 최대의 효과를 끌어올 수 있다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주요 연계방안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연계방안 요약

선행연구들에서는 아동 ·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을 위하여 지역사회상설협의체 구성 · 운영, 공동사업 추진과 예산확보, 전문가 양성, 실천 네트워크 구축, 법 · 제도의 정비, 공동 참여, 동기유발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들을 추출한 것이다.

① 연계 · 협력을 위한 상설실무협의체 구성(이민희 외, 2005; 천정웅 · 김정주, 1999; 김정배 외, 2001; 전희일, 2003): 지역사회 단위에서 교육관련 행정부처 공무원과 교육전문가, 청소년정책 관련 행정부처 공무원과 지역사회 청소년기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가 공동으로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를 위한 상설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의하고 있다.

② 연계 · 협력을 위한 관계기관간의 수평적 의사소통구조 확립(이민희 외, 2005): 연계 · 협력의 기본전제는 수평적인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계와 청소년계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 수평적 의사소통을 해나가야 함을 제의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예산과 인력, 규모 면에서 큰 교육체제가 우위에 서려 한다면 자칫 연계 · 협력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 기초한다.

③ 연계 · 협력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민희 외, 2005; 천정웅 · 김정주, 1999; 최상덕, 2006; 양철승, 2006; 한상철 · 이채식 · 이상진, 2007): 교육분야는 나름대로 체계적인 조직체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분야는 행정조직, 청소년기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청소년분야의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연계 · 협력의 실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청소년분야 관련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의하고 있다.

④ 연계 · 협력을 위한 법 · 제도의 개선 및 예산확보(이민희 외, 2005; 김정배 외, 2001):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 · 협력을 위해서는 법 ·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률적으로는 예를 들어 청소년기본법 제10조의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같은 제도와 교육정책과의 연계 협력이 필요함을 제의하고 있으며, 아울러 양 정책의 연계 · 협력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원도 필요함을 제의하고 있다.

⑤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청소년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 공동 참여(조영승, 1999; 김정배 외, 2001; 한상철 외, 2007; 양철승, 2006): 연계 · 협력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과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가 공동참여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의하고 있다.

⑥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시간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제도의 실질적 개혁(조영승, 1999): 시간부족으로 학생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실정이어서 교육제도를 실질적으로 개혁하여 학업의 일부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의하고 있다.

⑦ 학교 밖 청소년복지 · 환경 · 문화 · 문제 · 상담정책을 통해 학교교육의 사회적 기반을 제공(조영승, 1999; 양철승, 2006; 최상덕, 2006; 김재일, 2004): 이제까지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던 학교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교사의 업무 과정,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복지, 환경, 문화, 문제, 상담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⑧ 청소년활동 참여유도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한상철 · 이채식 · 이상진, 2007; 전희일, 2003): 학생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성적, 진학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의하고 있다.

⑨ 학교 밖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전희일, 2003; 김재일, 2004): 학교의 문제를 학교 밖 전문가와 연계하여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의하고 있다.

2) 선행연구의 시사점

선행연구들은 큰 틀에서의 연계협력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는데 있어서는 큰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에서 제시한 연계 · 협력을 위한 지역사회상설협의체 구성 · 운영, 공동사업 추진과 예산확보, 전문가 양성, 실천 네트워크 구축, 법 · 제도의 정비, 공동 참여, 동기유발 등의 전략들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폭넓게 연계 · 협력의 영역들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교육정책의 이슈들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Action Plan)을 제시한 연구는 일천하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전략들이 곧바로 정책화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동 ·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이 국가 또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성공적인 연계 ·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아동 · 청소년정책 인프라를 분석하고, 교육정책의 최근 이슈와 흐름을 분석하며, 이를 통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각의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선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이 있으며, 전문가 포럼, 행정기관과의 다양한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연구의 정책 반영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Ⅲ.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인프라 현황과 연계의 문제점

1.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인프라 현황
2.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인프라 학교연계 실태와 문제점

Ⅲ.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인프라 현황과 연계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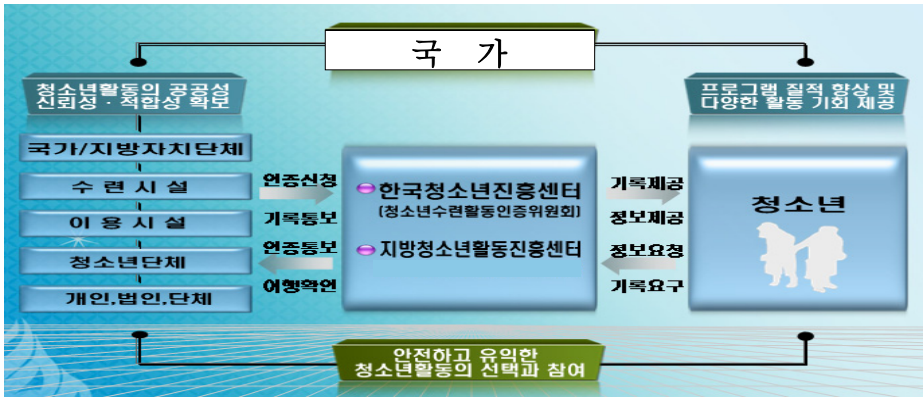
1.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인프라 현황

1) 정책 및 프로그램 분야 인프라 현황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으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시범실시 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였다. 위원장 포함 15인의 위원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고, 인증심사를 위해 별도로 인증심사원을 선발 · 운영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인증심사원은 전국적으로 283명에 달한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추진체계는 [그림 1]과 같으며(한국청소년진흥센터, 2009a), 인증된 수련활동 참여 청소년에게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명의의 기록확인서가 발급된다.



[그림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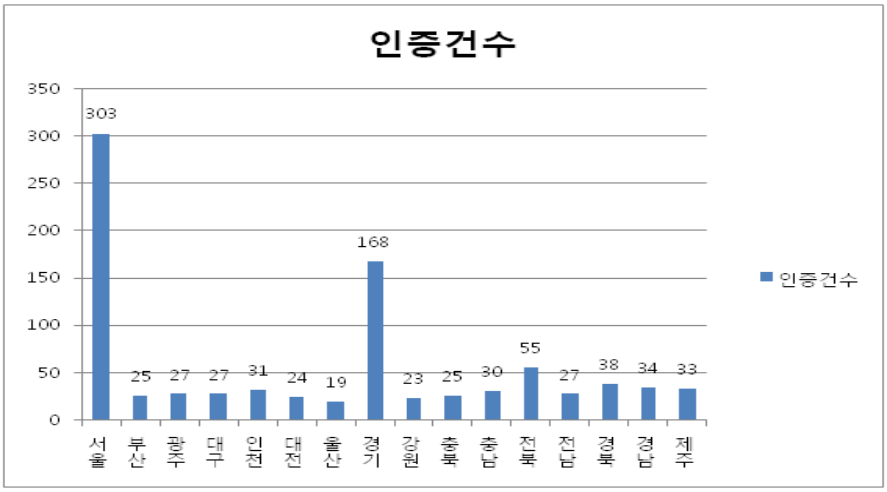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인증수련활동 영역은 건강 · 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등 9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1>과 같다.

<표 III-1>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

영역	영역별 활동 예시(안)
건강·보건활동	신체단련활동, 약물예방활동,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활동, 안전·응급처치활동, 성교육활동
과학정보활동	모형 및 로봇활동, 인터넷활동, 우주천체활동, 정보캠프활동, 영상매체활동 등
교류활동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남북 청소년교류활동,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 국제이해활동, 다문화이해활동, 세계문화비교활동, 한민족청소년캠프 등
모험개척활동	탐사·등반활동, 야영활동, 해양활동, 오지탐사활동, 극기훈련활동, 호연지기활동, 수상훈련활동, 한국의 산수 탐사활동, 안전지킴이 활동 등
문화예술활동	지역문화, 세계문화, 대중문화, 역사연극활동, 어울마당, 전통예술활동 등
봉사활동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지역사회개발 및 참여 활동 등
직업체험활동	청소년모의창업, 경제캠프, 사회생활기술, 진로탐색 활동, 직업현장체험 등
환경보존활동	생태활동, 환경탐사활동, 자연지도 만들기, 숲체험, 환경음식 만들기, 환경살리기 활동, 환경·시설 보존활동 등
자기(인성) 계발활동	표현능력개발 수련활동, 자기탐구활동, 자기존중감향상 프로그램, 자기표현활동, 심성수련활동 등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 아동 · 청소년백서.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2009년 6월 현재 총 897개의 프로그램이 인증되었다. 인증수련활동의 지역별 현황과 영역별 현황은 [그림 2], <표 Ⅲ-2>와 같다. 지역별로는 서울 303건, 경기 168건의 순이고, 영역별로는 문화예술활동 152건, 봉사활동과 인성활동이 각 110건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인증수련활동 지역별 현황(2009년 6월 현재)

자료 : 한국청소년진흥센터(2009a)

<표 Ⅲ-2> 영역별 인증수련활동 현황

계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인성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873	56	64	8	49	152	110	110	57	86

자료 : 한국청소년진흥센터(2009a)

(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Award)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부군인 필립 공에 의해 1956년 설립되어, 세계최초 에베레스트 등반자인 헌트 경과 독일 교육학자 쿠르트 한 박사의 지도 아래 처음 운영된 이래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27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목적은 만 14~25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 및 탐험 활동을 통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지역 및 세계 사회에 이바지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단체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운영되는 국제 프로그램이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운영원칙은 참여 청소년의 연령은 반드시 14세~25세 사이여야 하며, 4개의 활동 영역(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과 3가지 포상단계(동장:14세 이상, 은장:15세 이상, 금장:16세 이상)로 구성되어 있다. 신입 회원의 최소 참여기간은 동장 참가자는 6개월, 은장 참가자는 12개월, 금장 참가자는 18개월이다. 별도로 금장 참여 청소년들은 집에서 떨어져 숙박하는 합숙훈련을 수행해야 한다. 활동영역 및 프로그램 유형은 <표 Ⅲ-3>과 같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비경쟁성(Non-Competitive), 평등성(Available to All), 자발성(Voluntary), 유연성(Flexibility), 균형성(Balanced Program), 단계성(Progression), 성취지향성(Record of Achievement), 과정 중시성(Value of process), 지속성(Marathon not a Sprint), 재미(Enjoyment) 등의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표 III-3>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활동영역과 프로그램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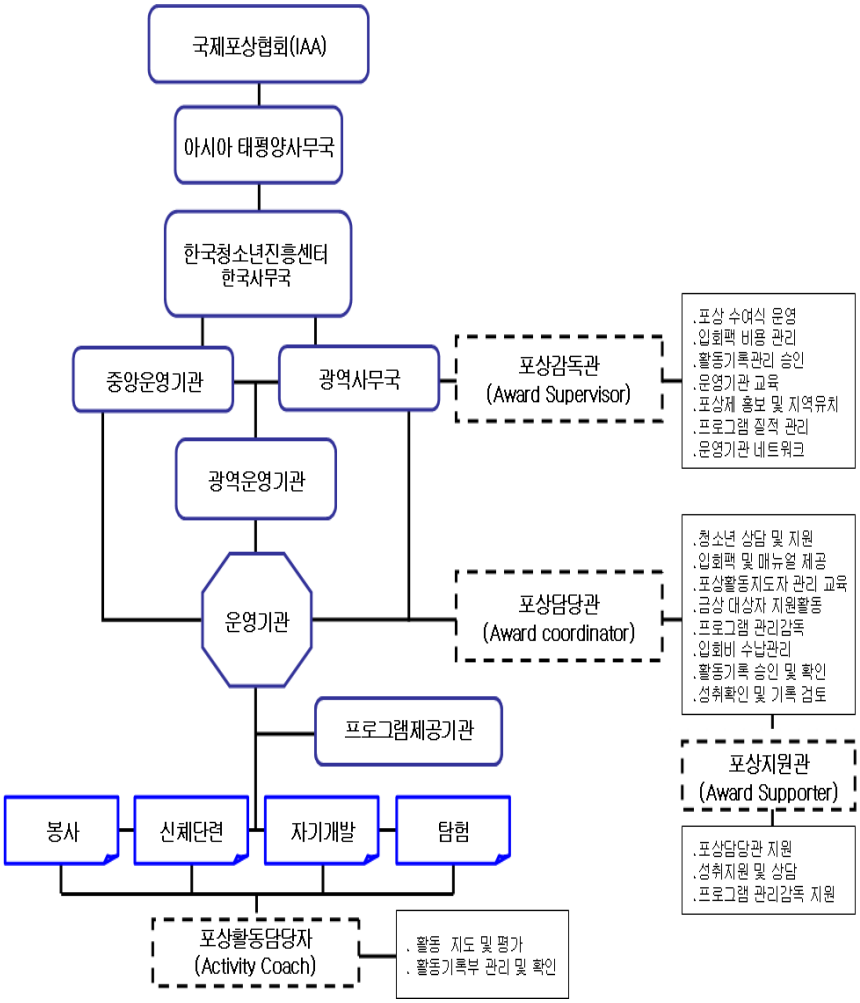
활동영역	내 용	프로그램유형
봉사활동 (Service)	타인에게 유용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	· 지역사회(시설) · 환경운동 · 자선활동 · 청소년단체
자기개발활동 (Skills)	개인의 관심을 개발하고 실용적 기술 습득	· 음악 및 공연예술 · 예술 및 공예 · 수집 및 연구활동 · 의사소통 · 직업
신체단련활동 (Physical Recreation)	신체적 단련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개인활동 · 단체활동
탐험활동 (Adventurous Journey)	모험 및 탐사활동을 통한 도전정신 및 성취감획득	· 모험활동 · 탐사활동
합숙활동 (Residential Project) ※금장활동에 한함	합숙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의 경험과 공동체의식 형성	· 자원봉사 단체의 활동캠프 · 코치 및 강습 훈련과정 · 환경보호 프로젝트

자료 : 한국청소년진흥센터(2009b)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포상절차는 운영기관 방문 및 상담 => 프로그램 참여 => 기록 및 확인 => 포상요청 => 포상심의 => 포상의 순서로 진행된다. 2008년 시범운영기관 참가자 352명 중 처음으로 92명이 동장을 수상하였다. 포상절차와 운영구성도는 [그림 3], [그림 4]와 같다.

[그림 3]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절차

자료 : 한국청소년진흥센터(2009b)



[그림 4]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구성도

자료 : 한국청소년진흥센터(2009b)

우리나라는 2008년도부터 본격 시작하였으며, 2009년 현재 한국 사무국은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포상을 담당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위인 운영기관(LO: Licensed Operators)이 2008년 15개에서 2009년 41개로 대폭 확대되었다(한국청소년진흥센터, 2009b).

(3)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정부는 청소년 자원봉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에는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1996년 6월 27일)를, 전국 16개 시·도에 '시·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그 명칭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변경하였다.

16개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내 청소년자원봉사 담당부서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수급연계 및 정보제공,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터전개발 및 인증관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관련기관간의 협조 체제 구축 및 청소년 활동 전반의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8년 9월말 현재 전국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수는 1,336,652명이다.

<표 III-4> 연도별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인원

연 도	활동인원(명)
2000	544,848
2001	506,797
2002	717,143
2003	861,142
2004	975,674
2005	1,045,920
2006	1,185,693
2007	1,656,266
2008.9	1,336,652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아동·청소년백서.

(4) 청소년방과후 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youth after-school activity)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활동이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 · 맞벌이 ·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수업 후 나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능력 배양 · 체험활동 · 급식 · 건강관리 · 상담 등 종합 학습지원 및 복지 · 보호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표 III-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저소득·맞벌이·한부모 가정의 학교수업 후 나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능력 배양·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 종합 학습지원 및 복지·보호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
사업대상	맞벌이·한부모·부모의 실직·파산·신용불량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후 나홀로 있는 청소년(초4-중2) - '05년 : 2,350명(연인원: 225,600명) - '06년 : 4,200명(연인원: 1,260,000명) - '07년 : 6,300명(연인원: 1,890,600명)
시행주체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운영
설치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청소년공부방, 청소년단체시설 등
사업기간	'07.1~12월 년중 상시 실시(토요일, 방학중에도 운영) * 신규아카데미의 경우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운영 * 부산시범아카데미의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운영
사업단위	150개소(기본형 1개소 총40명, 1개반 20명, 2개반) 운영
사업예산	총 237.11억원 - 아카데미운영비 : 청소년기금 116.77억원, 지방비 116.77억원, - 운영컨설팅 및 평가·위탁 관리비 : 3.57억원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아동 · 청소년백서.

맞벌이 · 한부모 · 부모의 실직 · 파산 · 신용불량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 후 나홀로 있는 청소년(초4~중2)은 2005년 2,350명(연인원 : 225,600명), 2006년 4,200명(연인원 1,260,000명), 2007년 6,300명(연인원: 1,890,600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청소년공부방, 청소년단체 소유시설 등을 활용하고 있다. 2007년 현재 15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총 237.1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이 예산은 청소년기금 116.77억원, 지방비 116.77억원을 운영비로, 3.57억원을 운영컨설팅 및 평가 · 위탁 관리비로 구분 책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16조1항11호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보고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전국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에 위치하여, 아동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여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생활지원, 학습지원, 놀이 및 특별활동 지원,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빈곤아동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는 빈곤아동들의 복지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지역사회 센터로 자리잡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12월 현재 통계를 보면 총 76,229명으로 전년에 비해 17,000여명이 증가하였다. 지역아동센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년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43.1%(32,867명)이며 다음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37.0%(28,177명), 중학생 12.1%(9,224명), 미취학 5.4%(4,127명), 고등학생 1.9%(1,413명), 탈학교 0.6%(421명)의 순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지역아동센터의 소득계층별로는 82.2%가 빈곤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8.5%(21,704명), 차상위계층 40.4%(30,785명), 학교급식지원대상자 13.4% (10,191명), 학교급식비미지원대상자 17.8%(13,549명)가 이용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법제화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6년에는 902개소에서 2007년에는 1,800개소로 확대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2) 인적자원 분야 인프라 현황

아직까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청소년지도자로 지칭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학자들이나 정책담당자, 현장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되고 있지 못하다(한상철 외, 2001). 2008 아동·청소년백서에는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총칭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청소년지도자는 다음 [그림 9-1]과 같이 유형화될 수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그림 5] 청소년지도자의 분류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아동·청소년백서

청소년지도자는 국가자격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일반지도자와 자원지도자를 포함한다.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각각 1급 지도사, 2급 지도사, 3급 지도사를 두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하여 1991년 명지대를 시작으로 각 대학에 청소년관련 학과들이 신설되기 시작했다. 2008년 3월 현재 32개의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을 설치 ·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이 청소년관련 학과들은 청소년학의 학문적 발전 도모와 더불어 청소년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러한 청소년관련 학과출신 학생들과 현장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를 통하여 국가자격을 부여하

고 있으며, 청소년관련 시설과 단체에 일정한 기준을 두어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 양성은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한국청소년수련원에서 의무 연수를 실시한 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배치·활용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즉, 자격검정제도는 자격검정, 연수, 배치·활용의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자격검정은 1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며, 자격검정원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하면, 필기 및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합격자들은 한국청소년수련원(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30시간 이상의 연수에 참가해야 하며, 이 연수를 수료한 자에 한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배부한다. 자격증을 배부받은 사람은 공식적으로 청소년지도사가 되며, 이 청소년지도사들을 청소년관련 단체와 시설에서 공모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활용하게 된다.

청소년지도사 양성계획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3년부터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해오고 있다. 실제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5년간 1급 청소년지도사 1,286명, 2급 청소년지도사 8,262명, 3급 청소년지도사 5,287명 등 총 14,815명의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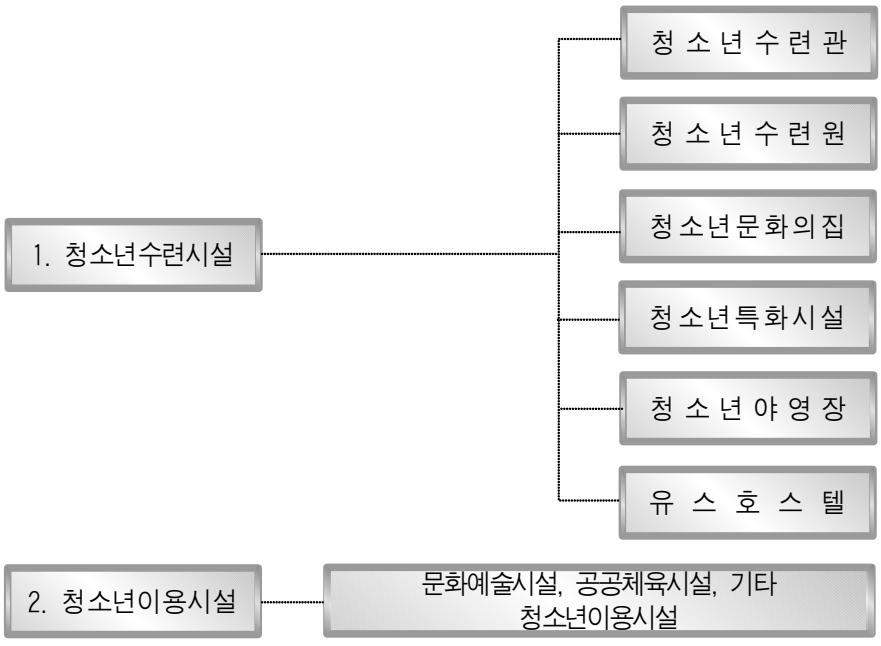
특히 자격검정 필기시험면제제도가 시행된 2008년도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27명, 2급 청소년지도사 2,086명, 3급 청소년지도사 631명 등 한해에만 총 2,744명이 배출되었다. 관련학과나 과목이수 코스가 대폭 늘어나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한 1급과 2급 청소년지도사가 대폭 늘어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숫자를 더하면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총 17,559명의 청소년지도사가 배출되었다. 실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청소년단체나 시설, 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사의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3) 시설 및 단체 분야 인프라 현황

(1) 아동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거리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전에는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하고 있다.(청소년위원회, 2005)



[그림 6]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2006 청소년백서.

‘청소년수련관’ 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의미하며,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이며. 2007년 현재 143개소가 운영 중이다.

‘청소년수련원’ 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2007년 현재 전국 17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국립청소년수련원 2개소(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충남 천안소재,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강원 평창소재)가 운영 중이다.

‘청소년문화의집’ 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2007년 현재 197개소가 운영 중이다.

‘청소년특화시설’ 은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을 의미한다. 2008년 현재 청소년특화시설은 ①서울특별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 “스스로넷”, ②서울특별시립 청소년문화교류센터 “MIZY"(미지), ③서울특별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 " HAJA"(하자), ④서울특별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 “AHA"(아하), ⑤서울특별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 ⑥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6개소가 운영 중이다.

‘청소년야영장’ 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말하며 전국에 43개소가 운영 중이다.

‘유스호스텔’ 은 청소년의 숙박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국에 102개 시설이 운영 중이다.

1992년 이전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전국적으로 150여개에 불과하였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12월 현재 약 810개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각종 청소년수련시설별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수는 다음 <표 Ⅲ-6>과 같다.

<표 III-6>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2007. 12. 31 현재)

구 분	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교육청 시설
공 공	552	139	189	43	22	11	6	142
민 간	258	4	9	133	21	91	0	0
합 계	810	143	198	176	43	102	6	142

※ 주 : 국립시설(2개):중앙수련원(충남 천안)/평창수련원(강원 평창)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아동·청소년백서

아동복지법 제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다. 아동복지시설 현황과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다음 <표 Ⅲ-7>, <표 Ⅲ-8>와 같다.

<표 III-7> 아동복지시설 현황

시설 / 년도	양육	직업훈련	보호치료	자립지원	일시보호	종합시설	아동복지관	아동전용시설	계
2003	239	5	6	13	10	2	1	3	279
2004	239	4	6	13	11	2	1	3	279
2005	242	4	8	13	13	2	1	3	286
2006	243	3	8	13	13	2	-	3	285
2007	243	3	8	13	13	2	-	3	286

※ 주 : 종합시설은 일시보호시설과 아동상담소를 겸함
※ 자료 : 통계청(2007), 장래인구추계.

<표 III-8> 지역아동센터 현황

구 분	2005	2006	2007
시민단체	139	66	80
재단법인	117	144	146
사단법인	61	89	111
사회복지법인	170	245	267
종교단체	618	757	861
개인	559	660	1,085
지자체	4	5	4
기타	41	63	64
합계	1,709	2,029	2,618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7)

(2) 아동 · 청소년단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단체가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1965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발족시켜 범사회적 청소년운동체제를 구축하였다. 이후 1985년 '세계청소년의 해'를 기점으로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 1990년 '청소년헌장' 선포, 1991년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 제정, 1992년 '청소년의 해' 운영, 그리고 1993년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수립 등은 청소년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시킨 계기가 되었다.(천정웅, 1999)

우리나라 청소년단체 중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정단체로는 스카우트연맹, 국제연합한국학생연합회, 해양소년단연맹,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이 있다. 청소년단체는 각기 고유의 설립목적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특수법인이 되고, 여러 청소년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회원단체를 확대하여 청소년육성을 위한 공동노력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2008년 현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된 73개 회원단체와 기타

가입하지 않은 단체를 포함하여 총 350여개의 청소년단체가 활동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청소년단체 외에 아동단체들도 1992년부터 한국아동단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 가입된 회원단체 수는 40개이다(한국아동단체협의회 홈페이지).

아동·청소년단체는 각기 고유의 설립목적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또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아동·청소년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2.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인프라 학교연계 실태와 문제점

1) 정책 및 프로그램 분야의 학교연계 실태와 문제점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학교 교육정책과의 연계 노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한국청소년진흥센터a, 2009).

첫째, 수련활동 인증기록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이다.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진흥센터는 시·도 장학관 및 장학사 워크숍(09. 1. 29 – 30, 대전)에서 동 제도의 안내 및 연계방안 논의, 2009년도 상반기 시·도 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회의(09. 3. 24, 서울)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및 홍보협조 등의 내용을 안건으로 심의, 시·도 교육청은 관내 각급 학교에 행정안내(09. 4. 9) 등의 노력으로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지침에 안내, 시도교육청은 이를 관내 각급 학교에 문서로 동 내용 안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국가 인증수련활동 안내” 배너 홍보 등의 성과를 올렸다.

둘째, 대학 입학 시 가산점 부여이다. 2009년 5월 20일 국가 인증 청소년수련활동 참여 기록의 대학 입학시 가산점 반영과 관련하여 청소년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 중 나사렛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아인재대학, 순천향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호서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대학입학 시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와의 연계에 있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첫째,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연관된다. 예를 들어 빈부격차의 측면에서 가난한 학생보다는 부유한 학생이 인증수련활동 참가가 용이하며, 지역격차의 측면에서 농어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 학생들의 참여가 용이한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둘째, 콘텐츠의 충실화 문제이다. 과연 인증수련활동들이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고 교육정책에서 활용할 만한 내용들(교육적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셋째, 입학사정관제와의 연계 측면에서 현 수준에서는 전형요소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넷째, 학교와의 연계를 뒷받침할 사무국의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현재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인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요청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증수련활동기록확인서를 학교 요구에 맞게 재조정하는 문제, 인증프로그램을 학교 교과목별로 유형화하는 문제, 입학사정관 교육시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교원연수 시 활용할 과목별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국민적 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표프로그램의 개발, 인증프로그램의 질적인 강화, 인증제를 보다 폭넓게 활동기록제로 전환하는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도 학교와의 연계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다각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기관으로 몇

개의 학교를 지정하여 실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홈페이지 링크, 포상 인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입학사정관제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인증실적 반영, 포상 담당 지도교사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16개시도별 협력학교 운영, 16개 시도교육청과 16개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의 정기적 연계 등의 협조사항들을 전달하였다(한국청소년진흥센터b, 2009).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도는 제도화의 초기에 있고,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보다 더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 전형요소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프로그램이 완전한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대규모로 이용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의 자리매김도 하나의 과제로 남는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마찬가지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인증서를 입학사정관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학사정관 교육이나 교원연수에 활용할 소개 프로그램 개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도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교과목별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 등의 과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학교교육에서는 학생생활기록부에 학생 봉사활동 점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학생봉사활동은 학교자체내의 청소나 화단가꾸기 등의 단순한 봉사활동과 학교밖의 관공서 청소 등의 단순한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진정한 의미의 사회봉사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청소년분야에서는 청소년봉사활동터전(복지기관 등)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참여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온라인시스템으로 활동실적을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9월말 현재 전국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수는 1,336,652명이다.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학생봉사활동을 청소년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양질의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계의 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단계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청소년방과후 활동

방과후 활동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방과후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가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다. 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학교수업 후 나홀로 시간을 보내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방과후 학교는 학교교과교육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져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나름대로 교과와 활동을 적절히 결합한 방과후 아카데미 모델을 모범으로 방과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간의 중복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2) 인적자원 분야의 연계실태와 문제점

제7차 교육과정 등으로 인하여 체험활동을 강조하면서 교사들은 자신이 맡은 교과교육 외에 여러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지도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들은 교과교육과 각종 공문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인 체험활동의 기획, 운영, 평가라는 어려움까지 가중되어 실제 학교 내에서 체험활동이 질적으로 우수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청소년활동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의 대부분인 학생들을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라는 울타리의 폐쇄성에 부딪쳐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교사의 요구와 청소년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정

책연계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학교내에 체험활동을 담당하는 교사를 두는 것이지만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으로 현시기 도입은 어려운 실정이다. 예산확보도 어렵거니와 교사와 양성과정이 다른 청소년지도사를 교사화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CA나 재량활동 시간에 교사와 청소년지도사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학교와 인근 청소년수련시설간에 협약을 맺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며, 학교의 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시설 및 단체 분야의 연계실태와 문제점

청소년수련시설들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학교와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연계가 어렵고, 수련시설종사자의 개인적인 친분 등을 통하여 연계를 이루고 있다. 최근 각종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지표에 학교와의 연계실적 반영 등으로 인하여 수련시설들의 학교와의 연계 실적이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각 시립수련시설에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계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상호인식이나 정보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학교의 폐쇄성을 들 수 있다. 학교의 자원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교육부서와 학교의 태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8조에 따라 실내집회장, 야외집회장, 체육활동장, 수련의 숲, 특성화수련활동장(문화적 감성함양 활동장, 과학 및 정보화 능력 함양활동장, 모험심과 개척정신 함양활동장, 전문적 직업능력 함양활동장, 국제감각 함양활동장, 기타 특성화활동장 등), 자치활동실, 강의실, 생활관, 야영지, 자가취사장, 위생시설, 지도자실, 상담실, 양

호실, 휴게실, 물품보관시설, 방송설비 등을 수련시설 특성별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체험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청소년단체 역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하여 학교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회원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도 적극적으로 제고하지 못하고 있다. 몇몇 거대 청소년단체들은 자체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학교내에서 청소년 클럽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단체들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프로그램의 질적 강화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Ⅳ.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분석 및 연계 시사점

1. 미래형교육과정
2. 대학입학사정관제
3. 방과후 학교
4. 국가 진로교육정책

Ⅳ.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분석 및 연계 시사점

청소년정책이 모든 청소년을 위한 보편타당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청소년정책은 비록 출발은 특정한 대상이나 집단의 복지관점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전체 청소년을 위한 성장과 역량개발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불 서로 다른 영역의 정책으로 분리되어 실천되었던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간의 긴밀한 연계 협력의 가능성을 최근 새롭게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강조되고 있는 신제도의 성공적 정착 관점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의 주요 교육정책인 미래형교육과정, 대학 입학사정관 제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진로교육 종합계획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미래형교육과정

1) 미래형교육과정(안) 내용

현 정부에서는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 실현을 비전으로 '미래형교육과정' 을 새롭게 구상하고 있다. 그동안 해방이후 학교교육과정은 8~10년을 주기로 7차례 개정해 왔고, 이번에 다시 개정한다면 8차 교육과정이 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8차교육과정' 이라 칭하지 않고 '미래형교육과정' 으로 칭함으로써 종전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시한 '미래형교육과정(안)' 은 미래형교육과정을 새로이 구상하게 된 배경과 현재의 학교교육에 대한 진단, 그리고 미래형교육과정 구상전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

의, 2009). 미래형교육과정(안) 개발의 배경으로는 크게 세계환경과 국가위상의 변화, 인재육성전략의 재조정 요청, 교육의 질에 대한 기준 재정립, 그리고 우리교육의 고질적 문제 해소 등이 제시되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선진인류국가로 도약하여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위상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내는 인재의 유형도 과거의 기능인력, 국내중심 인력에서 글로벌창의인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식의 양이나 시험점수, 학생 간 상대적 서열 등으로 지나친 경쟁을 부추겼던 과거의 학교모습에서 이제는 창의성과 상상력 등 핵심역량의 신장을 특성으로 하는 학교교육의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전국이 동일한 획일적 교육과정, 과도한 사교육비 병폐, 단위학교와 구성원의 자율적 혁신역량 미흡 등 우리교육의 고질적 문제 해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미래형교육과정(안)에서는 대국민 여론조사, 4개의 연구주제로 구성된 교육과정 선진화 연구, 국가교육과정포럼운영,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7차례) 개최 등의 과정을 거쳐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 진단과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급자위주의 교과편성, 국가주도의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 형식적 비교과활동 운영 등이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에 실시한 대국민여론조사(2009.06)에 의하면 학부모의 67.8%, 교사의 65.8%가 비교과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의 현실적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미래형교육과정(안)에서는 다음 6가지를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으로 상정하고 있다.

① 학생의 과도한 학습 부담 경감하되 기초·기본교육은 강화
②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 실현을 위해 학생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혁신
③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권 확대를 통해 교실개혁 유도
④ 교과지식 중심의 교육활동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교육활동 강화
⑤ 교육과정 개혁을 기반으로 한 수능시험의 근본적 개선 유도

⑥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의 연속성 유지

미래형교육과정(안)에서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을 통한 의미 있는 학습활동 전개,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조정 등 교육과정의 혁신, 학교자율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권 확대,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수능제도의 근본적 개혁 유도 등이다. 각각의 방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학습부담의 경감을 통한 의미 있는 학습활동 전개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은 주당 10개 과목, 중·고등학생은 11-13개 과목을 학습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과다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흥미가 저하되어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학기당, 분기당, 주당 이수과목수를 8개 이하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특히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목의 경우 집중이수제를 도입하여 특정 분기, 학기, 학년에 집중이수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몰입을 높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학년단위로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학기단위로 변경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학년군 또는 교과군 편성·운영을 통해 필수 교과목 축소와 이를 통한 학습의 비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토론이나 실험중심 등의 수업혁신을 유도하여 사교육경감 환경조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2) 전인적 성장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현 7차 교육과정에서는 비교과활동으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편성되어 있다. 재량활동의 경우 창의적 재량활동(자기주도학습, 범교과학습)과 교과재량활동으로 구성되며, 특별활동은 적응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계발활동, 자치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창의적재량활동의 경우 국가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이수해야 할 내용을 정하여 하달하고 있으며, 이런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본래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여전히 형식적 운영 및 교과의 보충학습 프로그램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형교육과정(안)에서는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초·중학교에서 주당 평균 3시간 이상, 고등학교 주당 평균 4시간 이상 운영(고등학교2→4시간)하도록 하고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편성 · 운영은 학교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세부 영역으로는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기타활동 등이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구체적인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배당은 다음과 같다.

① 초등학교

<표 IV-1> 미래형교육과정(안) 교육과정 - 초등학교

구 분		초등학교		
		1~2	3~4	5~6
교과(군)	국어	476	408	408
	사회/도덕	통합교과A 204	272	272
	수학	272	272	272
	과학/실과	136	204	340
	체육	136	204	204
	예술(음악/미술)	통합교과B 272	272	272
	외국어(영어)	·	136	204
창의적 체험 활동	진로 활동	204 시간	204 시간	204 시간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기타 활동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		1,700	1,972	2,176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바로알기.

② 중학교

<표 Ⅳ-2> 미래형교육과정(안) - 중학교 교육과정

구 분		중학교(시간)
		7(중1) ~ 9(중3)
교과(군)	국어	442
	사회/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 · 가정	646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외국어(영어)	340
	선택	204
창의적 체험 활동	진로 활동	306 시간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기타 활동	
총 수업 시간 수		3,366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바로알기.

③ 고등학교

<표 Ⅳ-3> 미래형교육과정(안)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구분	영역	교과(군)	필수이수단위		학교자율과정
교과(군)	기초	국어	15(10)	45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5(10)		
		영어	15(10)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15(10)	35	
		과학	15(10)		
	체육 · 예술	체육	10(5)	20	
		예술(음악/미술)	10(5)		
	생활 · 교양	기술 · 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15	15	
	소 계		115		67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활동	24 단위 (408 시간)		
		봉사 활동			
		동아리활동			
		기타 활동			
총 이수 단위			206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바로알기.

한편 국가, 교육청, 지자체는 내실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창의적 체험활동 참여 기록은 상급학교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3)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조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

현행 국민공동기본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10개의 기본교과를 획일적으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특성(전문계고,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등)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10학년 과정을 똑같게 운영하여 일종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중학교 과정인 9학년까지로 조정하여 국민기초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초·중학교 과정으로 명확히 하고, 학업성취도평가 등을 통해 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하고자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기초핵심역량 강화 교육과정으로 혁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교단계의 교과를 기초영역, 탐구영역, 예체능영역, 선택영역으로 나누어 내실화를 도모하며, 교과활동 이외의 창의적 재량활동을 강화하여 개성신장, 여가선용, 창의성 개발,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전인교육 실현에 기여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가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의 과목 편성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 학교자율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확대

제 7차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학교교육은 지역, 학교, 학생집단의 특성화와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수학생이나 학습부진이 심한 학생 모두에게 탄력적인 교과목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미래형교육과정(안)에서는 국가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만 제

시하고, 단위학교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갖도록 하여 학교교육의 실질적인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과목별 20% 자율 증감이 허용되며, 교과군 또는 학년군 도입을 통해 학교자율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가능하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년군 도입으로 무학년제 운영이 가능하며, 공동필수 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교과군별로 필수 이수단위 수만을 지정함은 물론 66단위 이하에서 학교자율과정 설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학생 각자의 진로와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특히 종전에는 소수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이 있을 경우 여건상 개설이 불가능했지만, 지역별 거점학교 및 순회교사 운영을 통해 소수의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에 대한 학습기회도 적극 보장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5)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수능제도의 근본적 개혁 유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미래형교육과정 개정과 더불어 후속으로 수능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대학입학시험제도에 의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수능제도에 대한 개선 없이는 어떤 교육과정 개편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고교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하여 수능제도를 정비하되, 기본 방향은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과도한 입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수능 응시과목 축소와 응시횟수 확대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

2) 미래형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정책의 연계

현재 하나의 시안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미래형교육과정은 해방이후 7차례 개정되었던 어느 교육과정보다도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학생 개인의 선택권, 그리고 비교과활동의 내실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래형교육과정은 청소년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육과정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전인적 성장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는 청소년정책과의 연계 없이는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해방이후 정부에서 7차례 교육과정을 개정해 오면서 교과외 활동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 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교과활동을 창의적 재량활동과 교과재량활동으로 구성된 재량활동과, 적응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계발활동, 자치활동 등으로 구성된 특별활동으로 나누어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현재 초중등학교에서의 비교과활동은 미래형교육과정에서 진단한 것처럼 여전히 형식적 운영에 머물고 있다. 이는 미래형교육과정에서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비교과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이 내실화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과정 문서에서 강조하더라도 실질적인 실행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비교과활동은 항상 구두선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미래형교육과정에서 진정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강조한 것이라면 청소년정책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적으로 비교과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단위학교에서는 형식적인 운영에 머무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일차적으로는 체계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공간 및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문서에서 강조되고 있듯이 일선학교 기관장이나 모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전히 인식하고 있다. 이는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참여교사들의 66%가 향후 교육과정 개정시 단위학교에서의 비교과활동 시간 확대를 찬성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증명해 주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단위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전담할 인력을 새로이 채용하거나 시설이나 공간을 새롭게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형교육과정에서는 단위학교에서의 비교과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 국가의 청소년정

책에 의해 전국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810여개(보건복지가족부, 2008)의 청소년수련시설과 거기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적극 활용하면 단위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화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육과정에 제시된 모든 내용은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 교사라는 한정된 인력이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즉 국가의 교육과정, 지역사회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내지는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정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책무성을 교육청과 학교에서만 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문호를 열어 지역사회 학생들의 역량개발을 학교만이 단독으로 짊어질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시설을 활용한 역량개발을 도모할 때가 된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청소년관련 모든 조직이나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청소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의 역량개발을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요하다면 청소년분야 전문인력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학교를 찾아가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담당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학교군을 형성하여 학생들이 지역내 청소년수련시설로 나와서 청소년전문인력의 지도하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의 학생들의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을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수행하려는 폐쇄성을 극복하고,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이 미래형교육과정에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정책을 맡고 있는 부처에서는 미래형교육과정 개정에 터한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간의 긴밀한 연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대학입학사정관제

한국에서 대학입시제도는 학교교육정책의 전부라 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삶의 양태가 좌우되고 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정책 또한 대학입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본질적으로 학교교육정책은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교과외 활동, 이른바 체험학습을 강조하고 있어 학교밖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청소년정책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해방이후 60년 동안 수없이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었지만 그 때마다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는 청소년정책과 무관하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청소년정책의 손과 발을 묶어놓았다. 그러나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은 모두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고, 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적어도 양 정책이 양립할 수 없는 경쟁관계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직 시행초기이기는 하나 2008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대학입학사정관제는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이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접점일 될 수 있다고 본다. 대학입학사정관제는 2008년 10개 대학에 처음 시범 도입되어 2009년 현재 전국 88개 대학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대학입학사정관제 도입의 의미와 특성, 그리고 이의 정착을 통한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정의와 도입

입학사정관제도란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학생의 성적, 개인 환경, 잠재력 및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8).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여부는 각 대학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야 한다는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필고사를 통해 측정할 수 없는 잠재력과 역량을 입시에 반영하고 고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받고 있다.

학업성적외의 다양한 요소들을 대학의 입학사정에 반영하는 입학사정관제의 기원은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1910년대,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미국에는 이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라틴어와 몇몇 과목의 시험성적으로 운영되던 대학의 신입생 선발에서 '세련되지 않은' 유대인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들의 명문대학 입학률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차별성을 드러내지 않고 이들의 입학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었고 그 결과가 1922년 Dartmouth 대학에서 성적이외에 인성, 운동실력, 지역배분을 전형요소로 고려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하버드의 경우 20%에 이르던 유대인 입학생의 비율이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사이에 10-16%로 줄어들고 대신 그 자리를 동문의 자녀, 혹은 다른 방법으로 공헌한 이들이 차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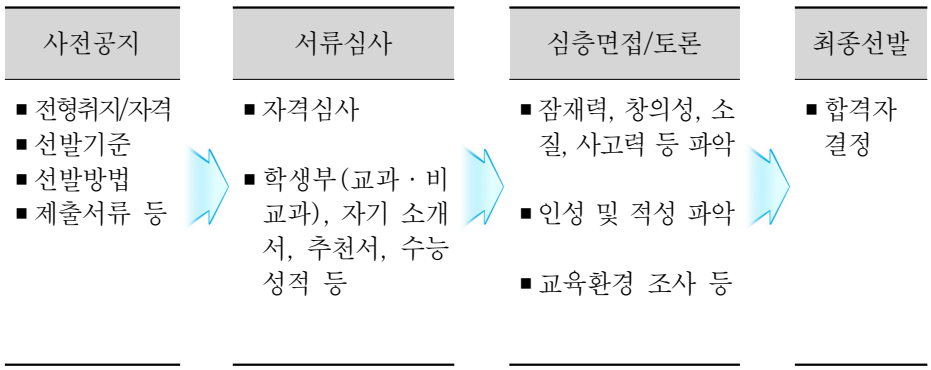
그 후 1950년대와 1960년대 사회 정치적 격변기와 몇 차례의 법적인 분쟁과 조정을 거쳐 개인의 외적 상황을 고려하고 정량적 요소와 더불어 정성적 요소를 가미하여 개별적이고 포괄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입학결정을 내리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게 된다. 입학사정관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미국 입학사정관제도 시작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로 변질되지 않을까를 걱정한다. 우리가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를 그대로 도입하기 보다는 우리의 특수성에 맞는 형태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 배경은 2004년 10월에 발표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개선안에는 2002년 이후의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당시의 문제 상황과 그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다. 우수학생에 대한 개념적 변화와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적성이나

소질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고교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 다양한 교육과정들이 대입전형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후 2007년 10개의 대학에 시범 도입 되었고, 2008년 40개 대학, 2009년 현재에는 88개 대학으로 확대되어 20,000여명 이상의 신입생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할 예정이다. 입학사정관제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확산된 데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그 바탕이 되었다.

첫해 20억이던 예산은 2009년 256억으로 늘어났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등 대학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입학사정관제 도입여부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등장하였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교육을 담당하는 각 부서는 입학사정관제를 교육과 관련한 이번 정부의 중요시책으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의 전형절차와 전형요소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7], <표 Ⅳ-4>와 같다.



[그림 7]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통전형절차(예시안)

※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2009. 5. 9). http://www.kcue.or.kr.

<표 Ⅳ-4> 입학사정관제 공통 전형요소(예시안)

요소	주요 내용
학생의 특성	■ 인지적 특성 – 사고력 : 이해력, 분석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 – 적성 및 역량 : 관련분야에 대한 소질, 학업적성, 대학 또는 학과 수학 능력, 현장경험 등 – 표현력 : 의사소통능력(토론/설득력) 등 ■ 정의적 특성 – 인성 : 자신감, 적극성, 리더십, 책임감, 목표지향성, 사회봉사성, 자기조절능력, 도덕성, 사회성 등 – 흥미 : 지적호기심, 열정, 학습동기 등 – 태도 : 가치관, 학습태도 등 ■ 잠재력, 미래 성장가능성, 전공 적응 가능성 등
대학 및 모집전형과의 적합성	■ 건학이념 및 학과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인지 여부 ■ 리더십전형, 사회적 배려전형 등 모집전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교육환경	■ 가정환경, 교육여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특성 등

※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2009. 5. 9). http://www.kcue.or.kr.

2)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정착과 청소년정책의 연계

입학사정관전형과 일반전형의 가장 큰 차이는 정성적 요소의 평가에 있다. 즉, 기존의 지필고사로는 측정할 수 없는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등의 인지적 요소와 인성, 태도, 흥미 등의 정의적 특성은 물론 자라온 환경과 교육여건 까지도 평가요소로 고려함으로써 인재선발의 장면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성적 요소의 평가가 자칫 또 하나의 차별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즉 평가요소로 고려되는 이러한 특성들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토양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경제력이나 정보력으로 키워진 인재보다 주어진 여건에서 능동적으로 자기의 길을 찾은 인재를 선발하고자 한다. 그러나 공교육의 현장에서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인성, 태도, 흥미를 자극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비용의 특이한 경험이나 활

동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상황이 되면 이는 형평과 기회균등이라는 교육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입학사정관제를 좌초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무엇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필요성과 당위성이 담겨 있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방안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이민희 외, 2005)는 양 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한 방향으로 청소년정책 측면에서는 상호 파트너십을 만들어갈 상설 실무협의체 구성, 청소년정책 관계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 양 정책이 상호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의 모색, 청소년정책의 수혜대상자를 학교교육정책 대상자 전체로 확대, 학교교육정책과 상호 보완하는 역할과 의미의 정립, 청소년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우선적 연계·협력을 들고 있다. 한편 학교교육정책 측면에서는 양 정책 전문가의 상호교류, 법제도의 개선,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성, 대학입학시험 위주의 교육체제 개혁을 연계협력을 위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Ⅳ-5>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의 방향

청소년 정책에서 생각하는 연계·협력방향	학교교육정책에서 생각하는 연계·협력방향
· 양 정책 상호 파트너십을 만들어갈 상설 실무협의체 구성 · 청소년 정책 관계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 모색 · 일부가 아닌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정책으로 변화 · 학교교육정책을 보완하는 역할과 의미에서 정책 전개 · 청소년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협력	· 양 정책의 전문 인력 간 상호교류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증대 · 법제도의 개선 · 학교와 지역사회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실천 · 대학입학시험 위주의 현행 교육체제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 자료 : 이민희 외(2005). p212- p.215에서 재정리

청소년정책이 일부를 위한 정책에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요자인 청소년과 그 부모가 그 흐름과 방향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지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학교교육정책이 대학입학시험 위주의 획일화된 현행 체제에서 여러 역량을 고르게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을 담당해줄 기관과 전문가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입학사정관제는 이 두 정책이 긴밀하게 만나는 첫 장면이 될 수 있다. 즉,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정책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대학입학사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영역과 대상을 전체 청소년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학교교육정책의 측면에서는 입학사정관제 본래의 정책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양 정책이 연계·협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다.

(1) 상호 이해와 존중의 기반 구축

기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은 만나지지 않는 평행선과 비슷했다. 청소년정책은 독자적인 영역의 구축과 확대를 위해 학교교육정책을 비판적으로 건드려왔고 학교교육정책은 청소년정책을 교육외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여 상대적으로 경시하여 왔다. 사실 이 두 분야는 서로 배척해야 하는 영역은 아님이 명백하다. 학교교육에 분명 교과 외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역량 중에는 지적역량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어떤 청소년전문가도 학교교육을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상호 보완적인 요소가 있는 만큼 상호 이해와 존중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청소년정책분야에서 더 많이 노력하여야 한다.

(2)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의 내실화

연계·협력을 위한 다음 걸음은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의 내실화에서 찾아

야 한다. 여기서의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이라 함은 수련활동, 방과 후 활동, 교과 외 활동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의 영향권아래에 있는 것들로 이른 바 입학사정관제가 요구하는 창의력, 잠재력, 리더십 등 여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 동안 교육의 중요한 한 요소임이 분명함에도 교과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었고 그 결과 참여대상의 연령은 낮아지고 내용은 부실화되는 경향이 일부 있어왔다.

수련활동 인증제를 비롯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소비자이자 수요자인 청소년과 학부모의 입장과 눈높이를 고려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특성화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참여가 수요자의 현안을 해결할 열쇠와 역량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각종 평가에 반영하여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을 만큼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3) 전문 인력의 양성과 훈련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연계 협력을 위한 세 번째 과제는 전문 인력의 양성에 있다. 단순한 기능이 아닌 청소년의 내적 역량과 잠재력을 발굴하고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에 능한 청소년지도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청소년을 둘러 싼 환경을 이해해야 하고 그들의 심리와 특성을 이해해야 하며 긍정적으로 동기 부여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바람직한 미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실수나 실패를 만회하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활동현장이 꾸준한 양적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 더딘 이면에는 역량 있는 청소년지도자의 부재 혹은 역량 있는 지도자를 붙들어 둘 유인책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 청소년과 청소년현장뿐 아니라 학교교육현장도 아울러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지도자의 양성과 더불어 이들을 학교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4)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확충

역량 있는 지도자의 양성과 더불어 이들 지도자들이 그 역량을 펼칠 기관의 확충에도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은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정책이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해서만 구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업성적 이외의 다양한 역량과 경험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고교 교육과정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설이 생활권 주변에 많이 존재해야만 가능하다.

2009년 청소년통계를 보면 9세~24세의 청소년인구는 10,38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반면 이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청소년 시설의 수는 810여개 정도이다. 한 개의 시설이 담당해야할 청소년의 수는 13,000여명으로 이는 독일의 1,720명, 영국의 3,252명, 일본의 4,892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생활권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시설인 수련관과 문화의집만을 대상으로 하면 그 수치는 더 열악하여 한 시설 당 29,000여명을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제도가 오히려 사교육시장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원하는 역량들은 현재의 학교교육현장에서는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정책이 청소년 정책과 현장 전문가를 적극 수용하여 전국의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나 거주 지역 주변의 수련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조기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3. 방과후 학교

1) 방과후학교 제도의 도입과 특성

사회 양극화와 교육격차의 심화, 사교육비 부담 증가, 맞벌이·한부모·이혼 가정의 증가, 방과후 홀로 방치되는 학생 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방과후활동은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방과후 활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독자적인 법적 근거와 예산, 인력 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교육인적적자원부의 방과후학교와 교육복지사업, 보건복지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사업, 여성가족부의 방과후보육 등은 한국 방과후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주도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방과후학교는 가장 많은 시설과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이다. 방과후학교는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교육 활동으로,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학교에서 방과후 교과, 특기·적성, 보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 것이다.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교육기능 보완',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실현', '학교의 지역사회화' 라는 4가지 목표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2008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의 99.9%인 11,076개교에서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은 전체 초·중·고 학생의 54.3%인 409만여 명으로 방과후 학교 도입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특기·적성 프로그램 112,805개, 교과 프로그램 117,534개, 초등 보육 교육 3,030개 등 총 23만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급별로 특성이 다른 만큼 프로그램의 운영에도 차이가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보육과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반면, 중·고등학교의 경우 무학년 수준별 선택 프로그램,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프로그램 등 교과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

<표 Ⅳ-6> 방과후학교의 정책목표

목 표	추 진 내 용
학교 교육 기능 보완	정규 수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여 잠재력 계발 및 인성·창의성 신장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
교육복지 구현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지원하여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지역사회 학교 실현	지역사회의 교육 수요를 학교 교육 활동에 반영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및 지자체·대학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 자료 : 이재분 외(2008).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4가지 특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형별 프로그램의 특징과 운영방식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국교육개발원, 2009, p. 18-19).

첫째, 방과후 보육교실이다. 방과후 보육교실은 수요자가 있고 여건이 갖추어진 학교부터 저학년 위주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모든 학년으로 확대할 수 있다. 학교의 유휴 교실을 활용한 지정교실을 설치(교사휴게실, 예절실 등)하고 과제 지도 및 교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강사로는 보육자격증 소지자나 자원봉사자 등의 보조 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일반 교실을 보육시설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시설비, 지역교실에 상주하는 보조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둘째, 특기·적성 계발 프로그램이다. 방과후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학생의 특기·적성, 소질계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좌 개설은 학습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이뤄지며 개설 강좌가 연계성과 연속성을 갖도록 편성·운영된다. 특히, 시간표 작성 시에 학부모 또는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고, 동일 강좌를 요일별로 겹치지 않게 배정하고 있다.

셋째, 교과 프로그램이다. 교과 프로그램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무학년 수준별 선택 프로그램,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학교별로 여건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1개 이상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학습지, 문제풀이식, 교재 판매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교과 진도 나가기 등 정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강제적, 획일적 운영 또한 금지하고 있다.

넷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방과후학교에서는 학령기 학생 뿐 아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 사회의 문화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사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도입되어 운영되어 온 수준별 보충학습, 특기정성교육, 방과후 교실과 같은 방과후 교육 활동이 통합된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과후 교육 활동과 차이가 없이 물리적 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학교의 자원 뿐 아니라 학교 밖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과후 교육 활동과 차별화된다. 기존 방과후 교육 활동과 비교한 방과후 학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함석동, 2007; 이재분 외, 2008).

첫째, 방과후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국·공립학교) 또는 자문(사립학교)을 거쳐 학교장이 중심이 되어 운영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방과후학교 운영시간, 프로그램 개설, 강사 채용, 강사료 및 수강료, 예산 편성·집행, 프로그램 위탁 등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학교장은 교육감이 수립한 시 도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따라 외부기관에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7년 6월 기준 1,333개 학교에서 2,657개의 프로그램을 외부 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아직까지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방과후학교의 강사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현직교원 중심으로 방과후 교육 활동을 운영하였으나, 현직

교원 뿐 아니라 외부강사, 지역사회 인사, 자원봉사자 등 단위학교가 프로그램을 담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모든 사람이 강사로 참여할 수 있다. 강사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과 강사 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강사료는 정액지급, 학생 수에 따른 차등지급, 시간수별 지급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셋째, 방과후학교는 교육대상으로 본교 재학생 이외에 타교학생, 지역사회의 성인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본교 시설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 활용이 권장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학교 간 연계가 강화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의 복원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및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설된다. 이에 따라 보육, 특기· 적성, 수준별·무학년 로그, 인성 창의성 계발 등의 프로그램이 개설·운영되고 있다. 교육 수요자는 자율의사에 따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선택·수강하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강료를 납부한다.

<표 Ⅳ-7>기존 방과후 교육 활동과 방과후학교의 비교

구분	기존 방과후 교육활동		방과후학교
운영 주체	학교장 중심	⇨	학교장, 대학,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운영주체의 개방성 확대
지도 강사	현직교원 중심		현직교원, 전문가, 학원 강사,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다양화
교육 대상	본교 재학생 위주		타교 학생이나 지역사회 성인까지 점진적 확대
교육 장소	본교 시설 위주		인근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 활용 극대화
프로 그램	공급자 중심		수요자인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 최대 보장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6).

방과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 교육 활동과 달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 학원에 비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수준별 학습이 어렵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비해 그 질적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교사들의 업무부담 증대와 동기부족으로 적극적 관여가 어렵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양계민 외, 2006).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학교의 학생참여율은 2006년 상반기 42.7%, 2007년 상반기 49.8%, 2008년 상반기 54.3%로 증가하고 있으며(이재분 외, 2008), ①학교의 교육기능 보완에 기여, ②학교밖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③계층간 ·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 ④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강화 및 지역 공동체 복원에 기여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함석동, 2007).

2) 방과후학교와 청소년정책의 연계

학교교육과 청소년정책의 연계를 논의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화두는 교육정책의 대표적 방과후 활동정책인 '방과후학교' 와 청소년정책의 대표적 방과후 활동정책인 '방과후 아카데미' 의 통합 운영이다. 하지만 단순한 물리적 통합의 논의는 신중하여야 한다. 한국에서의 방과후 활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내용의 방과후활동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인데, 방과후 활동의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유사 프로그램의 운영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이 기회와 함께 도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아직은 방과후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은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중복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 때문에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의 효율성면에서 본다면 이들 프로그램이 상호 유기적인 연계 없이 시행될 경우 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해 국가 예산의 낭비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프로그램의 물리적 통합에 대한 논의보다 유사 프로그램간의 차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관련 프로그램 간 연계를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집중되어야 한다.

방과후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청소년정책과 연계가 필요한 핵심 영역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방과후학교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양적으로는 팽창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한 신뢰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교과교육을 중시했던 교육정책 영역의 자원만으로는 비교과 영역을 포함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교육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정책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할 때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부분은 부수적인 일로 여겨질 뿐, 아무리 활성화 되더라도 교육정책의 주 사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보호, 복지 그리고 다양한 활동 지원의 영역에서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해 온 청소년정책과의 연계는 방과후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방과후학교 성공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인적자원의 측면, 물적자원의 측면, 프로그램교류 및 공동운영의 측면, 그리고 추진체계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논의해 볼 수 있다. 각각의 영역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적자원의 측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지도인력 확보하고 활용하는데 달려있다. 특히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인력 중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의 수준과 자질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강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 관리규정을 마련, 강의 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과후활동 실시로 가중된 교사의 업무부담 해소를 통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고, 방과후학교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학부모 코디네이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방과후학교의 지도인력으로 청소년정책의 핵심 인적자원인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프로그램 질을 높이는데 매우 효율적 방안이다. 이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양성된 전문인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교과지도의 영역을 제외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미 유사한 업무에 익숙해 있는 기존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의 전문가를 활용한다면 단시간에 프로그램을 질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방과후학교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지속적으로 활성화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지도사의 양성과정의 변화 또한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지도사의 양성은 대학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학교육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교과목의 강화가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학교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교과목의 도입도 필요하다. 더불어 자격연수나 전문연수 과정에서도 방과후학교에 대한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 하며, 방과후학교에서 학생들의 요구가 많은 프로그램 영역에 대한 전문연수 커리큘럼이 운영되어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물적자원의 측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를 논의 할 때, 학교공간의 개방과 관련된 논의는 항상 화두가 되어왔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등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활동의 경우 이미 방과후 시간에도 학교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방과후학교에서

는 학교의 자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학생이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더욱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과후학교에서는 교과 프로그램 이외에도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학교 자원만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학교 시설을 교과교육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이 설비가 갖추어진 청소년수련시설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상 생활권에 인접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이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운영이 가능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시설로 변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내 학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 차별되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활동장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나아가 청소년수련시설 · 단체 간에도 서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면, 지역사회 내 모든 자원이 사회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설과 장비의 특성화에 대한 지원사회로 정책부분에서도 지원해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방과후학교의 예산도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지역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청소년시설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3) 프로그램교류 및 공동운영

방과후학교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교육기관과 지역사회간의 성공적인 파트너십 구축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위해서는 개별학교 내 자원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협력적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께 의사결정 후 각자의 서비스 제공을 조정하는 역할조정의 수준을 넘어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의 매 단계에

서 협력하는 완전동조와 같은 높은 수준의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학교정책분야에서는 교과교육을, 청소년정책분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교육을 오랫동안 담당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영역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교과프로그램과 비교과프로그램, 그리고 보육까지도 아우르는 종합프로그램임을 고려해 본다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계 협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청소년정책분야의 우수한 프로그램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가칭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공모전과 같이 우수한 컨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정책과 청소년정책이이 함께 하는 공동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보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단위에서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청소년정책분야의 우수한 프로그램은 즉시 학교정책 현장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정책분야에서 이미 개발·보급된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인증을 받은 인증프로그램의 경우 질적 수순이 높은 매우 우수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4) 추진체계 측면

한국의 경우 지역에서 교육을 책임지는 공공기관과 일반 행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 상호 분리되어 있어 공동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 왔다. 그러나 2008년부터 방과후학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시 · 도 교육감이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이 시 · 도 계획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교육자치의 도입과 함께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높은 수준의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 방과후학교 정책이 그간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지원, 일선학교의 노력, 지역사회의 협조에 힘입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더욱 수준 높은 사업으로 발전하

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방과후활동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특히 방과후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교과부에서는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와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 시스템' 등 업무지원시스템을 기초자치단체 안에 설치하고, 지역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해 역할을 분담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는 방과후학교의 행정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 기업 · 대학 · NGO 등 지역사회 지원 유도, 지역 내 다양한 방과후 활동 간 연계, 온라인 관리 시스템 및 콜센터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시스템은 청소년활동기본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나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의 기능과 매우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당장은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와 지방활동진흥센터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업무연계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그 기능의 조절과 역할분담 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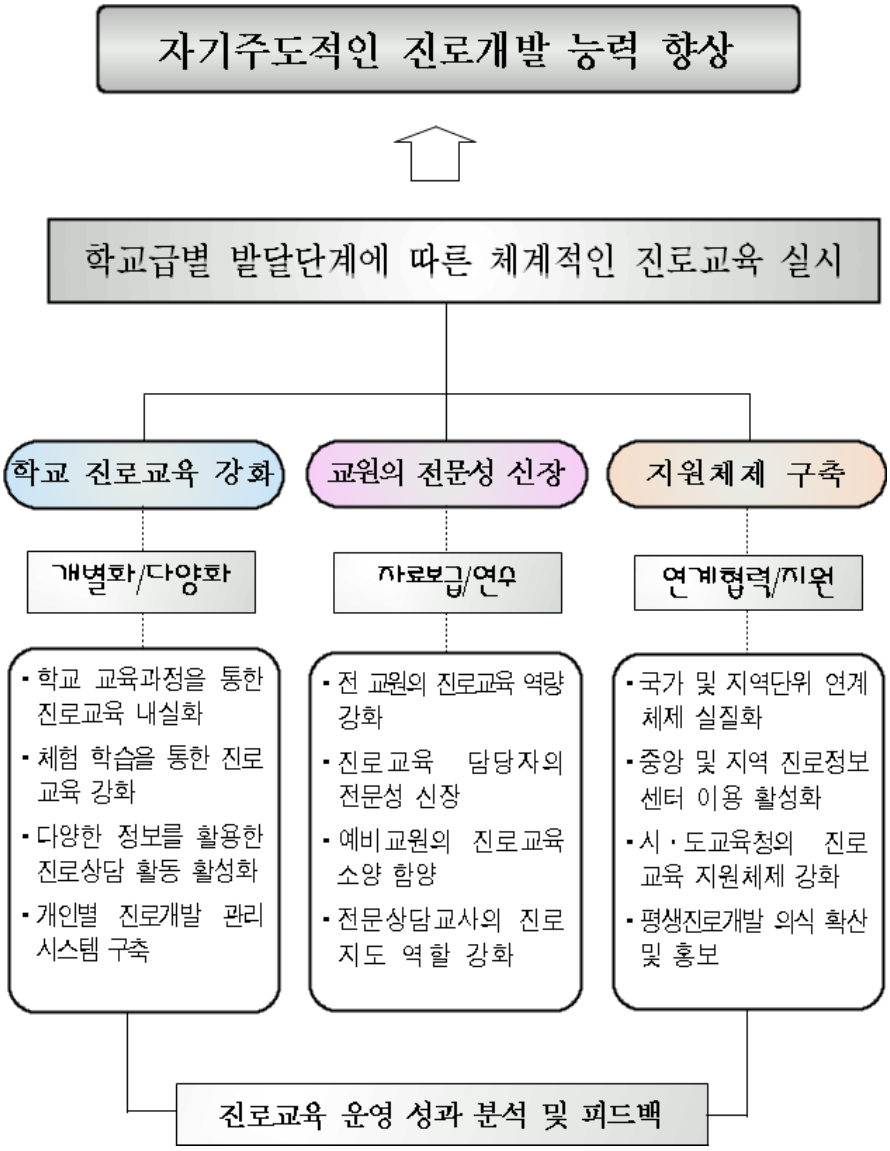
4. 국가 진로교육정책

1) 국가진로교육정책의 방향과 특성

정부의 진로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2006년 교육과학기술부(그 당시엔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립한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 당시 수립된 5개년 계획에는 국가 진로교육정책을 평생진로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행복한 삶이 가능한 인재 강국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자아실현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전 국민의 자기주도적인 평생진로개발의 체계적 지원'을 설정하였고, 이를 위해 3개 정책영역을 선정하였다. 3개 정책영역으로는 '청소년진로개발 역량 제고', '학습과 고용이 통합된 성인의 진로개발 확대', '진로개발지원체제 구축' 등 학생 청소년외의 성인기를 포함하는

생애 전 단계에 걸친 정책을 강조하였다. 특히, 청소년진로개발 역량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로 초 · 중등 진로교육 활성화, 대학생 노동시장 진입 지원, 학교 밖에서의 진로개발 지원, 양성평등 진로교육 등 4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초 · 중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정책은 위의 평생진로개발 5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초 · 중등학교 진로교육 추진방향은 평생진로개발 5개년 계획의 구체적 실천 차원에서 입안되었다. 여기에 제시된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추진방향은 학교급별 발달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 능력 함양을 돕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학교진로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체제 구축 등 3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8]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추진 방향(2008)

(1)학교진로교육 강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통한 진로교육 내실화, 체험학습을 통한 진로교육 강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진로상담 활동 활성화, 개인별 진로개발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① 교육과정을 통한 진로교육 내실화: 중등학교에서의 체험실천 중심의 교과운영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개발 지원 및 「진로와 직업」 과목 개설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5~6학년과 중등학교 8~10학년에서 교과활동,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진로교육이 집중 실시 되도록 유도하며, 각 교과의 단원에 직업에피소드, 일화, 성공직업인 사례 등 진로교육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진로의 다양성 인식과 함께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는 방향으로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② 체험학습을 통한 진로교육 강화: 다양한 직업세계 체험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전한 직업의식을 함양하도록 '직업체험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매년 5월 셋째 주를 '직업세계체험주간'으로 지정하여 1교 1사 직업체험, 기업 CEO특강 및 현직자의 직업설명회, 직업박람회 등 직업체험 행사 공동 개최, 부모님 직장 탐방의 날 등의 다양한 행사를 추진함으로서 범사회적으로 청소년진로교육 강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 · 관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의 job school, 교육과학기술부의 WISE 지원 사업, 지식경제부의 청소년 산업기술 체험 캠프, 보건복지가족부의 각종 청소년수련활동 등을 학생들의 진로체험학습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③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진로상담 활동 활성화: 성적위주의 진로지도를 지양하고, 다양한 진로정보와 진로상담활동을 통한 진로교육활성화를 위해 단위학교에서의 진로상담실 이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서실 및 진로상담실 등에 진로정보코너를 개설하고, 학부모 중심의 학생상담자원봉사회를 조직하며, 토요카운슬링학교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수요자들이 진로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상별 진로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와 커리어넷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급별 눈높이에 맞는 진로정보 개발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한 예가 '미래의 직업세계' 발간이다.

④ 개인별 진로개발 관리 시스템 구축: 단위학교에서의 흥미, 적성 등 표준화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를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이를 누가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각종 검사결과 및 개인의 진로 탐색과 개발 활동 과정 등을 커리어 포트폴리오로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커리어포트폴리오(career portpolio)란 개인이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취한 경험 및 능력을 오랫동안 기록 관리하는 도구로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하여 사용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 '커리어포트폴리오(마이커리어)'를 활용하고 있는 학생수가 약 8만 3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2)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강화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은 항상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전체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 진로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신장, 전문상담교사의 진로지도 역할 강화 등 3가지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① 전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 진로교육이 특정 교과가 아닌 범교과 학습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원대상 모든 자격 연수 및 일반연수 프로그램에 진로교육 내용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테면 자격연수의 경우 180시간 시 9시간 이상 진로교육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별 전 교원대상 심리검사 해석 및 상담기법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자율연수 및 진로교육 교과연구관한활성화를 통해서도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② 진로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신장: 각급 학교 진로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과 연계하여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연수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도 진로교육 관련 과목 및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감, 교장 및 전문직 대상 각종 협의회에서 진로교육을 강조하도록 하고 있다.

③ 전문상담교사의 진로지도 역할 강화: 현재 초·중등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향후 여건이 되면 더 배치할 예정인데, 이들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가운데 진로지도 역할을 보다 강조하고자 한다. 즉, 전문상담교사를 진로지도교사로 활용하여 단위학교 진로지도 계획 수립, 동교사 진로지도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의 진로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양성과정에서 진로교육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연수과정에서도 진로지도 전문가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상담순회교사들의 경우에도 진로지도 소양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진로교육 관련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3)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

학교 진로교육은 단위학교만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위로는 중앙정부나 지역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옆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산업체나 관공서, 청소년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진로교육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국가 및 지역단위 연계체제 실

질화, 중앙 및 지역 진로정보센터 이용 활성화, 시 · 도 교육청의 진로교육 지원체계 강화 등을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① 국가 및 지역단위 연계체제 실질화: 중앙정부와 지역수준에 각각 진로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진로교육에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앙에는 '국가진로교육전문위원회'를, 지역에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학부모, 기업인, 직업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 진로 · 직업지도 관련 인력풀을 구성하여 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② 중앙 및 지역 진로정보센터 이용 활성화: 생애단계별 세분화된 진로개발 프로그램 및 진로지도 자료 개발, 교사연수, 심리 · 적성검사 지원 등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중앙진로정보센터의 기능과 서비tm를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자료제공 및 자문, 심리검사 및 상담, 교사연수 표준 개발, 강사풀 운영 등 지역내 진로교육 정보 및 자료 공유와 담당자들간 교류 확대를 위해 시 · 도교육청에 지역진로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③ 시 · 도교육청의 진로교육 지원체제 강화: 시 · 도교육청에 진로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 및 전담자 지정하여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업무를 추진한다. 해당부서 및 담당자는 진로교육 기본계획 수립, 지역진로교육협의회 구성, 운영, 진로교육 인력풀 구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시 · 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을 동기화시키기 위해 시 · 도교육청 평가 시 진로교육 지원 노력 여부를 평가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 · 도의 교육과학연구원에 진로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관련 자료 개발 · 보급, 진로상담교사 및 학부모 연수, 지역진로정보센터 운영 등의 역할을 부여한다.

④ 평생진로개발 의식 확산 및 홍보: 진로정보나 자료 개발 시 언론보도,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를 개최함으로서 진로교육 활성화 및 담당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대회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 수여 및 연구실적 평점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진로교육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관계자 사기 앙양 및 업무개선을 통한 대국민 진로개발 서비스를 강화한다.

2) 진로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

이상과 같이 정부에서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현장에서의 진로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학교교육과정 내에서의 진로교육 실천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편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선택하는 학교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2007년도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의 58.1%, 전문계 고등학교의 46.4%만이「진로와 직업」교과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진로교육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역시 초중고 공히 70%미만의 학교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으며, 실천 내용 또한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활동에 치중함으로써 본래 강조하는 직업체험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둘째는 교사의 진로교육 전문성 부족이다. 이는 초중등학교 교사 양성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교사양성과정에 진로교육 관련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생활지도 부분에서 조금씩 다루고 있지만 이것으로 양성과정에서 진로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연수에서도 진로교육을 강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권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일선학교 교사들의 진로교육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셋째는 진로교육 지원체제가 여전히 미흡하다. 중앙 및 지역단위의 진로개발 관련 기관 간 연계 협력도 부족하고, 시 · 도의 진로교육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역할도 미흡한 수준이다. 시 · 도교육청의 진로교육 담당자를 보면 다양한 업무 가운데 하나로 진로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는 전담교사가 배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진로교육 실천이 어렵다.

이처럼 학교교육정책 내에서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란 무척 어려운 현실이다. 이미 6차와 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진로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총론수준에서 강조하였지만, 각론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까닭에 단위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실천은 하나의 슬로건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좀 더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학교는 철저히 교육과정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으므로 진로교육이 실천되려면 교육과정에 필수과목이나 각 과목의 교육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마인드와 전문성이 중요한데 이것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교사들이 진로교육에 관심가지려면 적어도 교육의 본질적 목적이 무엇이고, 학생의 잠재적 역량이 무엇이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산업과 직업세계가 어떻게 변천될 것인지에 대한 선행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교사들 대부분은 입시위주의 교육과 학생지도에 함몰되어 있어 진로교육이나 진로상담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특히,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해 학교급별로 적절한 진로체험, 직업체험활동을 하라고 권고하지만 교사들의 관심이 없다보니 여전히 형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2008년부터 매년 5월 셋째 주를 직업세계체험주간으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체험학습을 통한 진로교육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는 연간 학교교육계획서 수립 시 직업세계체험주간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세계 체험주간 행사 역시 학교 혼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지역사회의 관련기관과 산업체, 유관 전문가들이 협력해야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

명확한 것은 단위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의 실천은 일반 교과와 달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과 연계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 점에서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 간의 연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과도한 업무로 교사들이 진로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어렵다면 교사들에게 진로교육의 실천을 맡길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그 역할을 맡기면 된다. 미래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바로 청소년정책에서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천해 줄 수 있는 영역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에서 가장 활발하게 발달해 온 부분은 청소년수련활동과 청소년상담 영역이다. 이 두 영역의 성장을 위해 청소년정책에서는 각 시·군·구에 필요한 청소년시설과 공간을 설립해 주었으며, 또 그 공간에서 일할 전문가를 국가자격으로 제도화하여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였다.

이들은 현재 전국의 청소년수련 및 상담 관련 기관과 시설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그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청소년 진로지도와 진로상담이다. 실제적으로 일부 청소년상담기관과 수련기관에서는 지역의 단위학교와 연계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지도와 상담에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들이 학교와 연계하여 직업체험활동을 진행하는가 하면, 청소년상담사들의 경우는 직접 학교에 들어가서 집단상담활동을 돕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들의 학교 진로교육이나 진로상담 참여가 학교장의 특성이나 관심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학교장의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열려있을 경우 학교 교육과정에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이 적극 연계하고 참여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와 학교는 높은 담을 쌓게 된다.

그러므로 단위학교의 장에게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의 학교교육과정에의 투입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제도화시켜서 학생들에게는 필요해서 교육과정에 반영하지만, 학교에서 교사가 수행하기 어려운 활동이나 과업은 지역사회의 청소년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이자 협력인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정책에서는 학교에서 소홀히 다루었지만 학생들에게 필요한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천해 왔다. 진로교육 영역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핵심 영역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만 교육과정개발을 통해 청소년정책과의 연계를 보장한다면, 청소년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관련 프로그램과 전문가, 활동공간과 시설을 적극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을 돕는 일은 교육과학기술부나 학교 또는 교사들만의 몫이 아니라 청소년정책 담당 중앙 및 지방부처, 지역의 청소년 관련기관, 그리고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등이 함께 져야할 사회적 책무이자 짐이라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Ⅴ. 아동·청소년 인프라와 학교의 연계방안

1. 연계 기반의 구축 방향
2. 연계 유형 분석과 과제 개발 모형
3. 연계·협력을 위한 종합 추진과제
4. 연계·협력을 위한 현안 추진과제

Ⅴ. 아동 · 청소년 인프라와 학교의 연계방안

이 장에서는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인프라와 학교교육정책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계 기반의 구축 방향, 연계 · 협력의 유형 분석과 정책과제 개발 모형, 연계 · 협력을 위한 종합 추진과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정책과의 연계 · 협력 추진과제 순으로 제안하였다.

1. 연계 기반의 구축 방향

지금까지 청소년정책, 특히 청소년활동 분야에서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는 실제적인 수요자의 확보 문제였다. 즉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확보가 가장 큰 과제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생들이고 학교의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항상 문제로 제시되어 왔다. 반면에 학교에 대한 국가차원의 또는 사회적인 차원의 요구와 방향은 학교가 지역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교에 대한 개방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쇄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청소년정책 또는 청소년활동이 학교교육과 연계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의 교육과 청소년활동의 연계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있어왔다. 특히 청소년기본법(제48조)과 청소년활동진흥법(제9조)을 통해 청소년정책/청소년활동이 학교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법으로 규정까지 하였다. 청소년 분야의 학교연계에 대한 일련의 논의나 방향을 살펴보면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

학교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중의 하나로 청소년자원이 있을 수 있다. 청소년분야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주체로 자신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과 학교의 연계에 대한 논의나 실천은 대부분 학교를 독립변수로 하여 청소년분야가 종속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일방적 구애와 닫힌 학교의 벽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또한 실천수단을 갖지 못한 구호 수준의 정책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과 단순한 형식적 정책 제안으로는 그 진정성을 살릴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청소년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학교 연계가 행사 중심의 단편적 접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될 것이다.

1) 기본전제 : 개방, 지원, 협력의 관점 정립

(1)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 교육에 대한 비판중의 하나는 학교는 닫혀 있는 공간이라는 시각이다. 학교 공간은 어떤 측면에서는 지역과 유리된 하나의 섬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시각이나 선입견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공교육의 중심으로 지역의 주민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왔기 때문이다. 또한 상징적으로 학교의 운동장 개방이나 지역주민의 학교 운영 참여 등 지역과 연계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운동장 개방과 같은 상징적일 수 있는 정책도 실제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최근의 경향은 지역사회 속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다. 특별활동의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과정에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1998). 제7차교육과정 및 개정교육과정의 근거가 된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안 이후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 교육의 중요하게 부각되어 왔다(이광호 · 이태제 · 윤철경, 1999:2).

여기에 지역사회가 학교교육의 파트너로서 역할이 강조된 것은 주5일수업제의 도입이 큰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교육력, 학력관에 대한 강조는 현장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경험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지역사회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현장 체험중심 학습의 성패가 달려있다.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정책의 도입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는 방과후학교와 같은 교과외 활동도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인적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문제는 학교가 어떠한 관점과 위치에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학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갑' 으로서의 학교가 '을' 로서의 지역자원에게 용역을 주는 위치가 되는 학교우월주의적 입장, 폐쇄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효과적인 연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지역사회와 청소년 자원(infra)의 위치

청소년정책의 개발이나 집행에 있어서 우선되어야 할 청소년에 대한 관점은 일상생활 속의 청소년, 즉 지역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청소년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적 이념형으로서 가상의 청소년이 아닌 실제 지역사회 속의 청소년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정책은 지역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지역사회의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개발이 아닌 집행에 그 중심이 있고 집행의 기반은 지역사회 청소년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지역사회 청소년자원은 지역사회의 청소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두가지 측면에서 그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자원은 지역사회 청소년 개발의 지원기반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청소년정책은 모든 청소년들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개발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청소년정책의 주인공이자 수요자로서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자기개발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와 같은 자원들은 청소년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 물론 학교교육을 통한 청소년 개발의 측면도 있지만 지역사회에서의 청소

년이라 할 때는 학교의 '시간' 과 '공간' 범위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을 상정하게 될 것이다.

둘째, 청소년자원은 청소년과 지역사회 연계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과 같은 기관자원들은 청소년 자원인 동시에 지역자원이 된다. 지역의 행정기관, 지역의 교육기관, 지역의 시민단체, 지역의 복지기관, 지역의 문화기관 등 지역에는 매우 다양한 분야의 지원 조직체들이 있다. 지역의 청소년수련관의 일차적인 기능은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활동공간의 제공이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의 다른 청소년기관이나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연계를 맺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자로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되거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3) '보조' 의 관점과 '지원' 의 관점

지금까지 학교교육과 청소년분야의 관계에 있어서 잠재된 전제의 하나는 '주체' 로서의 '학교' 에 '객체' 로서의 청소년자원들이었다. 다른 의미로는 '주-종' 관계라 할 정도로 학교의 정책이나 결정, 방향, 지침에 청소년분야가 보조를 맞추거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청소년기관들의 입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청소년단체나 시설은 학교의 처분에 따르고 학교의 개방을 부탁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

특히 특별활동,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학교교육이 견지하는 입장에 대한 두 가지 논의는 상당한 시사점을 주는데 첫째는 '학교본위론' 이고, 둘째는 '학교한계론' 이다(이광호 · 이태제 · 윤철경,1999:122~123). 전자는 학교에서 모든 교육을 책임지고 지역사회 자원을 체험활동 '보조' 의 수단으로 '활용' 한다는 입장이다. 후자는 학교에서 교과교육 외에 모든 체험활동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들과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교육정책에서 주5일제수업이나 체험학습이 강조되면서 학교교육의 역할

과 함께 지역사회를 교육의 파트너로 전제하고 있다. 학교입장에서만 본다면 학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 하는 것이고 이 자체는 주-종의 관계가 아닌 이용의 관점일 수 있다. 지역사회 기관의 경우에는 이용자 확보의 차원으로 무리가 없는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교육활동을 위한 지역자원 활용에 있어서 학교우월주의의 입장에서 단순히 지역의 기관들을 보조기관으로 전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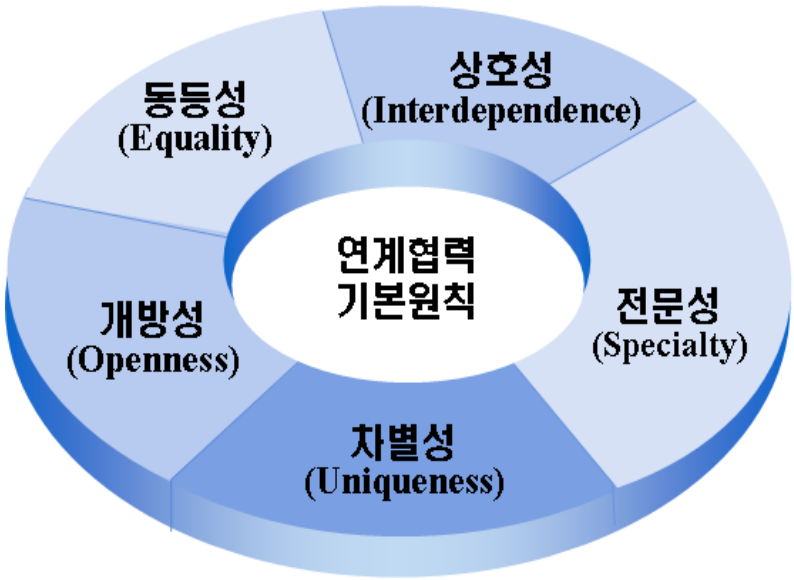
지역의 청소년기관을 비롯해서 문화예술기관, 복지기관,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 모든 자원들은 그 나름대로의 설립 목적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영역이다. 학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지역의 자원들은 학교를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 프로그램 자원, 시설 공간 자원을 제공하고 도와주는 '지원'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보조' 는 주-종의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지원' 은 각자의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을 주체적으로 제공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2) 연계·협력의 기본원칙

학교는 지역사회 속에 존재하며 지역자원의 활용이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학교가 먼저 개방하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 밖의 다양한 자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구해야 할 시점이다. 어떠한 분야도 독자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다.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부족한 부분을 상호의 보완을 통해 채워나가야 한다. 이는 모든 자원들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자원들은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과 또한 다른 지역의 자원들과 연계를 맺는 매개의 역할을 한다. 학교가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바로 지역의 청소년 자원들이다.

학교교육부문과 청소년부문이 상호간에 지원의 주체로서 연계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연계·협력의 기본원칙

① 동등성의 원칙

학교와 청소년자원은 파트너십을 통해 청소년자원이 보조적인 역할이 아닌 지원의 주체로서 동등한 관계를 구축한다.

② 상호성의 원칙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 협력이 아닌 학교부문의 요구와 청소년자원의 요구에 따라 상호간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③ 전문성의 원칙

교육 부문에서의 전문성과 청소년 부문에서의 전문성을 상호 인정하면서 인력부문, 프로그램 부문 등에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차별성의 원칙

학교와 연계된 다른 분야의 자원과의 차별화된 새로운 연계와 협력 사업을 발굴하도록 학교와 청소년 자원간에 노력해야 한다.

⑤ 개방성의 원칙

학교는 공간의 개방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개방성을 갖되 청소년자원들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협력해야 한다.

3) 연계·협력의 추진기반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연계 · 협력을 위한 추진기반은 정책적 추진기반의 확보, Win-Win 전략의 추구, 사회적 자원 네트워크의 구축과 확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정책적 추진기반의 확보

청소년 인프라 또는 청소년 자원을 기반으로 학교와 연계하는 것은 청소년인프라 입장에서 본다면 기왕에 구축된 인프라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학교의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통해 이용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된다.

청소년 인프라 자원의 활용은 결국 청소년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학교에서의 협력과 청소년 자원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실제적인 사업을 통한 현실성의 확보가 그 관건이 된다.

청소년 인프라의 활용을 위해 학교와 연계한다는 것은 결국 청소년정책 부문과 학교교육정책 부문의 연계가 그 기반이 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학교교육 영역은 공식적 교육으로 국가의 교육관련 법과 국가가 정하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다. 청소년정책 부문의 특성은 다소 차이점이 있지만 정책적 기반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서구와 달리 우리의 현재 청소년활동은 국가 정책을 기반으로 틀을 갖춘 측면이 강하다. 앞으로 시민의 자율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현재의 특성은 단체, 지도자, 시설, 프로그램 등 대부분이 국가의 법과 행정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정책적 자원으로서의 청소년 인프라 활용과 학교교육과의 연계는 실천 전략과 전략수행을 위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 근거가 정책적 추진기반 또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도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조직을 포함한다. 정책기반이란 결국 법적 근거와 조직에 바탕을 두는 동시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실행계획, 즉 공식적인 정책추진계획을 필요로 한다. 정책(계획)-법령-조직-제도는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며 정책의 완성을 위한 구성요소가 된다. 따라서 연계·협력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계획' 과 추진의 근거가 될 '법적 기반', 이를 추진할 추진조직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2) Win-Win 전략의 추구

서로 다른 사람들,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들 간의 연계와 협력은 상호간의 인정과 개방이라는 기본정신과 함께 실제 그 성과를 모두 나누는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일방의 손해가 전제된다면 어느 누구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치킨게임[1]뿐만 아니라 제로섬 게임의 원칙도 연계와 협력에는 적합하지 않다. 단지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계 시스템에 참여한 모든 주체가 이익과 성과를 얻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정책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의 연계 정책 또는 연계 방안은 일방적으로 학교에 이득이 가거나 청소년 자원에만 이득이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모두가 승리하는 원칙으로 'Win-Win' 전략의 원칙은 청소년자원의 학교 연계 정책 또는 사업에 있어서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이 추진 기반이 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자원 네트워크의 구축과 확장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부문이든 학교교육이든 어떠한 정책영역도 고립되어 존재할 수가 없다.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관계도 관계의 수와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매우 다양한 사람들과 연계되어 살아간다. 이러한

1) chicken game,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이론을 말함.(naver 백과사전)

인간들간의 사회적 관계를 가리켜 사회적 네트워크라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자원 부문과 학교교육 부문은 상호간에 유기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더욱 더 다양한 자원과의 폭 넓은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네트워크는 본래 컴퓨터네트워크에서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사회적 관계를 가리키는 일반적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네트워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매우 다양한 개별적인 요소와 요소들 간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사회적 네트워크로서 학교교육-청소년 인프라 자원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네트워크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스템으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구성 요소로는 우선 시스템 운영의 중심인 서버를 필요로 한다. 서버는 H/W로서의 기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처리하는 S/W와 결합한다.

내부 시스템을 외부의 네트워크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한데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라우터”이다(가정에서는 인터넷 공유기가 이 역할을 하게 된다). 라우터와 연계되면서 내부의 컴퓨터나 서버와의 연계를 위한 중간 기능을 하는 장비를 “허브HUB”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터미널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허브에 여러 개의 케이블로 연결된 PC와 같은 단말기는 내부 또는 외부의 컴퓨터와 연계된다. 그리고 “규약”, 프로토콜(protocol)이 있는데 이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화된 약속이다(인터넷의 경우에는 TCP/IP). 이러한 기술 요소에 이용자와 관리자 등과 같은 인적요소가 네트워크 시스템을 완성하게 된다.

청소년자원 내부의 네트워크의 경우에 대비한다면 서버의 역할, 라우터의 역할, 허브의 역할, 관리자의 역할, 케이블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 관련 행정기관 등

이 그 요소들이다.

그렇다면 네트워크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네트워크는 결국 최종이용자로 불리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학교교육도 하나의 네트워크이며 청소년자원도 하나의 네트워크이다. 두 네트워크 모두 핵심수요자인 청소년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각 네트워크의 구성요소들이 자기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때 학교의 학생도 행복하고 지역사회의 청소년도 행복하다.

그런데 각각의 네트워크로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고 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학교네트워크와 청소년네트워크가 연계하여 더 큰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화자원 네트워크, 복지자원 네트워크, 시민자원 네트워크 등 보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연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을 위한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연계 · 협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2. 연계 유형 분석과 과제 개발 모형

1) 연계의 기본유형

청소년 부문의 인프라와 학교교육과의 연계에 따른 실제적인 추진방안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일차적인 과정은 어떠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를 토대로 연계사업의 유형이나 구체적인 연계사업의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다.

학교의 청소년부문과 연계에 대한 적극성이나 개방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폭 넓은 관점에서 연계의 사례를 토대로 유형을 찾아보고자 한다. 앞선 장에서의 청소년 인프라 현황에 대한 분석과 교육정책의 주요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정책 사업화를 위한 추진방안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기준은 청소년 인프라 자원의 유형에 따른 기본적인 형태로 청소년 인프라 자원들이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① 인적자원 연계형 : 청소년지도자를 중심으로 청소년분야의 전문적인 인적자원들이 개별적 또는 조직적으로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지역의 청소년지도자가 학교에서 진행되는 축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② 기관자원 연계형 :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기관 차원에서 학교와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나 기관의 이용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인성체험 전문의 청소년단체가 학교의 재량활동 시간을 지원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 연계형 : 청소년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사업이나 기관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활용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Award)와 같은 사업이나 지역청소년문화축제에 학교가 단체로 참여하거나 학생 참여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기준은 연계 또는 사업운영의 주체에 따른 유형으로 주관하는 주체가 있고 이를 다른 분야의 자원들이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방식이다.

① 학교 주도형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활동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원으로 청소년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한 학교 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관 공간을 활용한 CA 프로그램 운영이 여기에 해당된다.

② 청소년 자원 주도형 : 청소년시설 또는 단체와 같은 청소년 자원들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학교가 참여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단체에서 시행하는 여름 캠프에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경우이다.

③ 지역사회 주도형 : 학교 또는 청소년 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학교와 청소년 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지역문화축제에 지역 학교와 청소년수련관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셋째 기준은 연계에 따른 사업이 실행되는 공간이 어느 곳인가라는 장소에 따른 유형이 있다.

① 학교 내부형 : 학교 내에서 연계된 사업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학교가 주관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는 청소년기관에 학교 공간만 대여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② 청소년 기관형 :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의 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연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시설의 프로그램에 학교에서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지만 단지 학교에서는 청소년 시설의 공간이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③ 지역사회 중심형 : 학교나 청소년 기관의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문화존의 경우 지역사회의 주요 거점 지역에서 청소년기관이 주관이 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학교의 동아리들이 참여하고 학교를 통해 참여 홍보가 이루어진다.

청소년인프라와 학교 간에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연계 사업은 대부분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이나 시설자원이 결합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주체 및 연계된 자원의 특성에 따라 연계의 유형이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청소년

부문의 인적자원, 기관자원, 프로그램 자원의 연계는 연계의 내용에 해당되므로 주관과 장소를 기준으로 연계사업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Ⅴ-1>과 같이 정리된다.

<표Ⅴ-1> 주관-장소에 따른 연계사업의 유형(모형)

구 분	학교 주관	청소년자원 주관	지역사회 주관
학교 내부형	학교주관으로 학교에서 개최하면서 청소년기관이 학교를 지원	학교를 이용하여 청소년기관이 주관하면서 학교에서 운영 지원	학교를 이용하여 지역기관이 주관하면서 청소년자원이 지원
청소년 기관형	청소년기관의 공간/자원의 지원을 받아 학교에서 사업 주관	청소년기관이 자체 자원을 활용하여 주관하면서 학교는 참여지원	청소년기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기관이 주관, 학교의 참여지원
지역 사회형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사업을 주관하고 청소년자원의 지원 받음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기관이 사업을 주관하면서 학교의 지원받음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자원들이 사업 주관하면서 지원을 받음

2) 요구의 유형에 따른 정책과제 개발 모형

(1) 학교-청소년 자원의 요구 유형

청소년 인프라 자원과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은 연계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첫 과정은 각 부문별로 어떠한 요구가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학교의 요구에 청소년자원이 활용되기만 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청소년자원이 가지고 있는 요구에 학교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가의 상호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연계와 협력이란 일방적 관계가 아닌 쌍방의 상호호혜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요구가 서로 일치할 때 상호간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의 교육에 대한 요구와 청소년인프라의 요구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교의 요구는 학생들의 현재의 교육과 앞으로의 진로개발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자원의 활용에 있을 것이다.

① 학교교육활동 운영 : 학교의 교육활동은 교육과정에 의한 정규과정과 교육과정외의 비정규활동으로 구분된다. 특히 교과외활동인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과 비정규교육과정인 방과후교육의 경우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통해 학교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기 원한다. 체험학습 및 다양한 교수방법의 도입, 학교 내에서 직접 실행하기 어려운 체험적 활동의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 전문기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② 학교 밖에서의 교육활동 : 주5일수업제의 도입과 함께 가정과 지역사회에 대해 학교 입장에서는 주2일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능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현장 체험학습의 강조와 함께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경험을 통해 학교에서 직접 담당하기 어려운 교육경험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되었다.

③ 졸업 후 미래 개발 지원 : 학교교육은 청소년들의 현재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졸업 후의 진로개발을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미래 개발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자기 개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청소년 인프라 자원들은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 제고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와 이용을 요구하고 있다.

① 인적자원의 요구 : 청소년인프라의 기본인 청소년지도자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인적자원들은 전문성의 함양, 청소년을 위한 도움과 안정적이고 다양한 지도활동의 기회를 요구한다.

② 기관자원 요구 : 청소년단체는 회원 조직의 증대나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기회를 요구하며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청소년시설은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적, 양적 이용률의 제고를 원한다.

③ 프로그램 요구 : 청소년 프로그램 관련 제도나 현장의 프로그램 인프라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소질을 찾고 스스로 자기 역량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기를 원한다.

셋째, 정책적 요구의 영역으로 부문별 고유의 정책과 함께 공동의 정책적 추진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계-협력을 위한 정책적 기반, 제도적 시스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행과제를 설정하게 된다.

(2) 추진과제 개발 모형의 설정 방안

연계 · 협력 사업이 누가 주관하여 어디에서 실행이 되는가에 대한 정리를 통해 연계의 유형을 알아보았다. 이는 구체적인 연계 사업이 실행이 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는 연계-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한 내용으로서 추진과제, 또는 추진방안의 실행모형으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청소년 인프라와 학교 교육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의 기반은 양 부문이 가지고 있는 요구를 어떻게 연계하여 상호간에 승승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본적인 프레임을 다음의 <표Ⅴ-2>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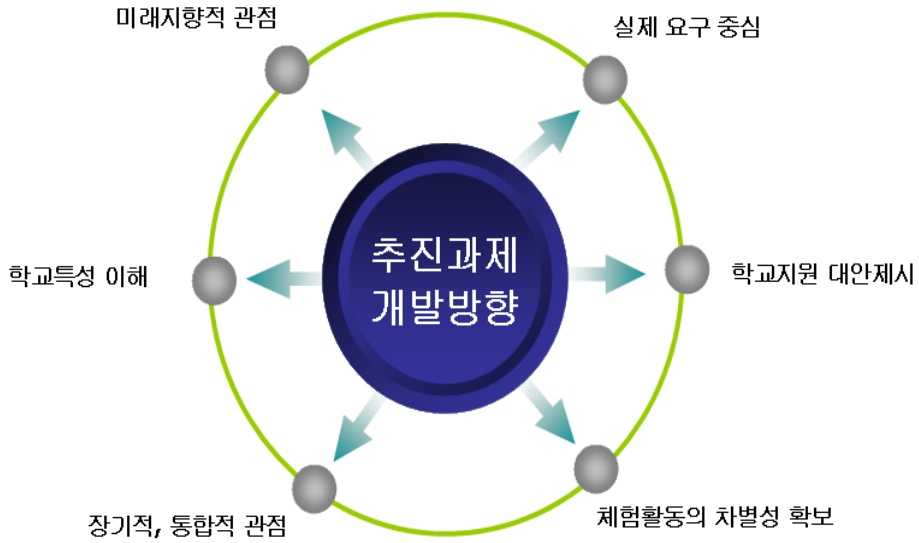
<표Ⅴ-2> 추진과제 개발의 기본 프레임

요구 기반		학교의 교육에 대한 요구		
		학교내 교육활동	학교밖 교육활동	미래개발 지원
청소년자원의 유형별 요구	인적자원	세부과제	세부과제	세부과제
	기관자원	세부과제	세부과제	세부과제
	프로그램자원	세부과제	세부과제	세부과제
공통영역 : 정책 추진을 위한 요구				

3. 연계 · 협력을 위한 종합 추진과제

1) 기본방향

청소년 인프라 자원을 활용한 학교와의 연계는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는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학교교육자원으로서의 청소년 인프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독립적 영역으로서의 청소년 자원이 학교를 지원하는 주체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서 연계의 출발점을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시적인 정책적 비전이나 대응도 중요하지만 보다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실행방안의 과제화가 더 중요한 과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진과제의 설정과 추진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을 다음 [그림 1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0] 연계·협력을 위한 추진과제 설정의 기본방향

첫째, 연계를 위한 추진과제는 미래의 대안적 정책과 변화하는 환경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여건이나 한계상황을 전제로 할 경우 이에 따른 정책대안이나 추진과제는 할 수 있는 것 보다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 보수적 관점보다는 변화에 대한 기대와 추진이라는 미래지향적 관점이 필요하다.

둘째, 실제적인 요구와 수요 중심으로 실행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연계사업의 실효성과 학교의 참여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두 분야 모둔 주체의 관점과 함께 호혜정신에 따라 상대방의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

셋째, 학교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학교의 교육과정의 구조, 여건과 환경, 특성을 전제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 요청으로 끝날 수 있으므로 청소년 자원들은 학교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의 치밀한 분석은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요구를 발견하게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자원이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연계 과제와 추진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대는 할 수 있지만 현재로는 한계가 있다. 학교의 특성과 교육과정, 수요를 분석하여 청소년자원들이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일회성 사업이 아닌 인적 자원, 기관 자원, 프로그램 자원이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추진과제를 개발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학교와 청소년 인프라 자원들이 장기적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협력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 인프라 자원의 독자적 영역과 전문적인 지원방식을 체계화하면서 교육활동과는 다른 체험활동의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 행사 중심, 장소 이용 중심, CA 시간의 대여나 학교단체 수련활동 운영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단순한 시설 이용 제공은 공간 연계의 의미는 있지만 진정한 연계라고 할 수는 없다. 청소년 자원의 전문성을 기반을 공동사업의 개념에 적합한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추진과제의 선정 기준과 과제의 체계

연계의 유형, 추진과제 개발의 모형과 기본방향을 토대로 실행해야 할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계 과제의 개발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과 중점 기준 요소의 선정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주관 및 장소의 기준도 있지만 청소년 인프라 자원이 학교 교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학교의 개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대상자의 요구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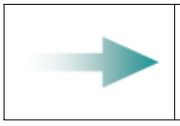
즉, 연계의 대상으로서 학교에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관한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과제의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실제 어떠한 실행방안을 과제화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청소년인프라 자원의 특성과 요구를 기반으로 학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학교의 교육수요에 대한 앞선 논의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추진과제를 정리하였다.

첫째, 학교는 학교내에서의 교육활동의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학교의 교육활동은 장소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학교의 고유업무로서의 활동영역을 기준으로 하며 그 주체는 학교이다. 다시 말하면 이 과정에서는 청소년 인프라가 주도적인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 학교의 교육활동은 정규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활동, 비교과활동(특별활동, 재량활동)과 정규과정은 아니지만 학교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비정규과정(방과후교육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장소의 개념 보다는 주관의 개념이 중요한데 교육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각종 학교 주관 체험학습은 학교내 교육활동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학교현장체험학습, 학교단체 수련활동 등은 학교의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법론에 따라 이를 학교 밖 자원들이 지원하는 형태가 된다. 이를 전제로 본 영역에 따른 추진과제를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교육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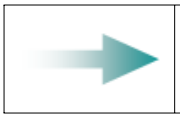
→	추진과제1. 학교내 교육과정 운영 연계-지원 추진과제2. 학교내 방과후 교육 운영 연계-지원

둘째,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교육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는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한 경우는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학생의 신분이 아닌 지역사회 청소년의 입장에서 본인들이 선택하여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를 학교의 봉사활동, 체험학습으로 인정하거나(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방식을 참조), 학교의 학생들이 지역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홍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학교 밖이라는 공간 특성과 운영주관의 특성(학교가 아닌 청소년자원 또는 지역기관들이 주체가 됨)에 따라 자유로운 활동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청소년자원들이 주관하는 체험활동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경험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과제를 설정한다.



추진과제3. 학교 밖 체험활동 운영 연계-지원
추진과제4. 지역사회 참여활동 연계-지원

셋째,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 부문에서도 청소년들의 자기 미래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자기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데 그 중점을 두면서 청소년개발의 관점이 강화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진로교육의 강화, 진로와 교육과정의 연계(진로에 따른 교과목의 선택범위 확대 등) 등 진로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부문은 학교중심의 진로교육과 직업체험 중심의 청소년 부문의 활동을 구분할 수 있다.



추진과제5. 학교 진로교육활동 프로그램 연계-지원
추진과제6. 청소년의 진로개발 체험활동 연계-지원

넷째, 청소년 인프라 자원들이 학교의 교육활동 요구에 대응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실행 사업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이행전략 또는 사업화 전략으로 거시적인 정책 기반의 구축에서부터 실제적인 사업수단 확보 등 실행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청소년 부문과 학교 부문의 협력 과제, 실행 관리 과제를 설정한다.

추진과제7. 이행전략-사업화를 위한 추진방안

이상과 같이 총 7개의 추진과제를 추진방안 개발의 영역으로 설정한 후 청소년자원의 유형과 유형별 요구 특성을 연계하여 추진과제별 실행사업을 선정한다. 추진과제7의 사업화를 위한 추진방안은 정책적 기반의 과제로 청소년자원의 운영기반 구축이나 연계를 위한 공동의 과업을 대상으로 한다.

6개의 기본과제를 기준으로 각각의 자원들의 특성에 따라 연계방안을 도출하고 실행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인적 인프라로서 청소년전문가들은 학교밖의 체험활동 운영 뿐만 아니라 학교내에서의 교육활동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의 창의재량활동의 전문지도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기관 인프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단체는 공간, 프로그램, 인적 자원의 통합적인 지원과 연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프로그램 인프라는 청소년분야의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활용하거나 참여하는 방식으로 연계가 될 것이다.

<표 Ⅴ-3> 연계·협력을 위한 추진과제 체계

추진과제		청소년 인프라 자원유형 방안		
		인적 자원	기관 자원	프로그램자원
학교내 교육 활동 지원	1. 학교내 교육과정 운영 연계-지원	1-1. 특별활동전문 지도 자 파견사업	1-2. 청소년단체의 특별활동 지원 확대 1-3. 시설유형별 특별활동 지원특화사업	1-4. 창의재량(범교과)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2. 학교내 방과후 교육 운영 연계-지원	2-1. 방과후 특기적성활동 전문 지도자 연계	2-2. 청소년수련관-방과후학교 포괄적 협력체제운영	2-3. 방과후학교용 프로그램 자원 공유
학교밖 체험 활동 지원	3. 학교밖 체험활동 운영 연계-지원	3-1. 학교연계형 현장체험활동 전문가 양성 지원	3-2. 지역사회단위체험활동연계망 운영 3-3. 청소년수련원 연계 전국 야외체험활동 코스 운영 3-4. 학교-전문단체 결연지원 사업	3-5. 프로그램 참여실적의 학교 연계 활성화 3-6. 학교연계형 지역단위프로그램 뱅크 운영 3-7. 지역단위청소년클럽활동 운영
	4. 지역사회 참여활동 연계-지원	4-1. 지역사회 단위 학교지원 전문지도자 배치	4-2. 학교-지역 기관과 연계의 허브로 수련관 기능 확대	4-3. 지역중심 청소년봉사활동 실적 관리 4-4.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학교 수요 개발 4-5. 지역단위 청소년참여 동아리 운영
미래 개발 지원	5. 학교 진로교육활동 프로그램 연계-지원	5-1. 진로교육전문가 학교 연계 지원	5-2. 학교-지역사회 직업체험기관 연계 사업	5-3. 진로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6. 청소년의 진로개발 체험활동 연계-지원	6-1. 분야별 전문 직업 멘토 풀 구축	6-2. 직업체험을 위한 청소년기관의 인턴십 운영	6-3. 진로개발 활동참여 경력기록부 운영
사업화 지원 체제	7. 이행전략-사업화를 위한 추진방안	7-1. 지역단위의 제도적 운영 기반 구축 7-2. 지역단위 학교연계지원센터 설치 운영 7-3. 시범지역사업을 통한 추진모형 제안 7-4. 학교대상 청소년자원 정보시스템 운영 7-5. 청소년활동 경험의 진학시스템 연계 7-6. 청소년 프로그램 품질 관리 체계 구축 7-7. 단계적 전략 개발을 통한 로드맵 구상		

3) 전략과제별 세부실행방안

추진과제1. 학교내 교육과정 운영 연계-지원

■ 1-1. 특별활동전문지도자 파견사업

학교의 교육활동 중 교과활동은 담당교사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으며 교과활동을 위한 외부전문가의 참여 요청도 있다. 특히 특별활동중 계발활동(단체활동, CA 등 포함), 봉사활동, 행사활동(학교 단체 수련활동 포함)의 분야는 학교 교사 입장에서는 시간운영과 전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제24조의 규정 등을 활용하여 특별활동 전문지도자를 원하는 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에서 지도자를 파견하는 사업의 실행을 추진한다.

제24조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①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한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에 소요되는 보수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2. 청소년단체의 특별활동 지원 확대

특별활동 중 계발활동에 포함된 청소년단체활동은 학교에서 주로 준거단체로 불리는 학교 기반의 단체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기존의 정책과 같이 1인 1단체 가입 정책을 통해 현재의 단체활동을 장려한다. 2차적으로는 전문화된 분야의 단체들이 학교에 단체조직을 개설하도록 지원한다. 3차로는 프로그램 분야별로 특화된 단체들이 단체조직이 아닌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공하여 연계가 되도록 지원한다.

■ 1-3. 시설유형별 특별활동 지원특화사업

청소년수련시설은 각 유형별로 기능 및 수요 대상에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각 유형에 따라 학교와의 연계사업 방향을 차별화함으로써 기능을 분담하여 지역사회 단위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한다. 아울러 학교와의 안정적인 연계를 위해 학교-개별시설이 아닌 지역학교-지역수련시설 전체의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 청소년수련관 : 현재의 CA 프로그램 운영지원 뿐만이 아니라 시설/장비/인적자원과 프로그램 등 통합적 협력 구축
- 청소년문화의집 : 소집단 중심의 자율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 학교단위 단체 프로그램 운영지원 외에 향후 소집단 단위의 주말 프로그램까지 확대
- 청소년특화시설 : 특화된 분야의 시설 체험과 함께 각 시설의 특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행
- 유스호스텔 : 수련활동에서 벗어나 여행지원 기능 강화

■ 1-4. 창의재량(범교과)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학교교육활동 중 재량활동은 교사 및 학교의 재량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과정이다. 교과재량은 교과 보충수업이지만 창의적재량은 범교과 또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학교 현장의 입장에서는 인성교육, 시민교육, 법교육, 예술교육, 저작권교육, 환경교육 등 다양한 범교과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직접 운영과 개발에 한계가 있다. 현재 일부 전문 단체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나 법교육, 저작권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체계화하여 지역단위로 1단체/1시설당 1개학교 1개 프로그램 지원 분야를 정하여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한다. 특히 분야별 연구학교/시범학교와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추진과제2. 학교내 방과후 교육 운영 연계-지원

■ 2-1. 방과후 특기적성활동 전문지도자 연계

학교에서 시행되는 방과후 교육활동은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 확대되면서 방과후보육 및 방과후학교 등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교과 중심의 방과후교육이 이루어지나 초등학교는 주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다. 학교단위로 개별적으로 또는 전문업체를 통해 강사를 확보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자체의 전문가(지도자, 평생교육 분야의 강사진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에서 우수한 지도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2. 청소년수련관-방과후학교 포괄적 협력체제 운영

현재 청소년분야의 방과후아카데미와 지역 학교의 방과후학교간에는 대상자 중복(바우처 프로그램의 경우)이나 시간대가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지역단위로 방과후 지원 사업의 체계화와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위해 대상자, 기능 등을 분담하고 부족한 부분을 상호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 MOU 및 협의회 등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2-3. 방과후학교용 프로그램 자원 공유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자원의 풀을 지역단위로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에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시 청소년 분야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공유한다. 또는 지역의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방과후학교용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추진과제3. 학교밖 체험활동 운영 연계-지원

■ 3-1. 학교연계형 현장체험활동 전문가 양성 지원

학교밖 체험활동은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현장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학교 입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체험활동 운영의 기반으로 분야별로 전문적인 현장체험활동전문가 연수과정을 운영한다(예술활동전문가과정 / 야외활동전문가과정 등). 특히 체험활동 원리를 바탕으로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역사체험전문가과정, 교과연계형 전문가과정도 포함한다.

■ 3-2. 지역사회단위 체험활동연계망 운영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체험활동에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지방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또는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자원들의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지역내 기관의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연중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참여를 홍보하며 테마형, 시즌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의 운영형태를 개발한다.

■ 3-3. 청소년수련원 연계 전국야외체험활동 코스 운영

청소년수련원은 대부분 산, 강, 바다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야외활동의 중심이 된다. 전국 권역별로 주요 명산 또는 주요 자연환경지역을 배경으로 수련원이 지역의 거점이 되어 야외체험활동을 제공한다. 학교 전체의 참여는 한계가 있으나 청소년동아리 단위 또는 소집단 단위로 참여할 계절단위, 유명한 지역단위, 분기별 코스 등 연중에 정기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연계된 코스를 제공한다.

■ 3-4. 학교-전문단체 결연지원 사업

청소년단체들은 회원 조직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교과활동을 포함) 분야별 전문단체를 지역단위(기초-광역)로 자매결연 방식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시행한다(예:청소년연극전문단체-연극을 국어수업/재량시간에 적용하고자 하는 학교의 연계 등)

■ 3-5. 프로그램 참여실적의 학교 연계 활성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에딘버러성취포상제 등 청소년들의 활동실적에 따른 인증-포상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이를 학교의 학생기록부, 입학사정관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관리체계를 충실하게 갖추도록 한다.

■ 3-6. 학교연계형 지역단위 프로그램 뱅크 운영

학교에서는 교과활동, 특별활동 등을 위해 지역의 자원,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로 프로그램 뱅크를 구축하여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매뉴얼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참여시킬 수 있는 실행 사업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확보한다.

■ 3-7. 지역단위 청소년클럽활동 운영

기존의 청소년동아리들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기초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학교의 동아리는 특별활동반 형태인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청소년클럽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직 결성의 개념 보다는 프로그램 자원을 청소년들이 활용하는데 초점을 둔다.

추진과제4. 지역사회 참여활동 연계-지원

■ 4-1. 지역사회 단위 학교지원 전문지도자 배치

주민자치센터를 기준으로 지역사회 단위의 청소년활동 전문가를 배치 또는 지정한다. 지역내의 학교에서 요구하는 지역행사/활동 참여, 지역의 봉사활동 참여 수요 등을 파악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지역청소년클럽의 운영에 관한 기획과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 4-2. 학교-지역 기관과 연계의 허브로 수련관 기능 확대

청소년수련관은 지역단위 청소년활동과 학교 연계의 중심조직 자원으로서 학교를 위한 지역연계 기능의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수련관에서 학교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조직하거나 학교와 지역기관의 업무협약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사업에 학교단위 참여 또는 학생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4-3. 지역중심 청소년봉사활동 실적 관리

청소년들의 시민참여활동-지역참여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인 지역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한다. 봉사활동은 학교의 특별활동 영역으로 생활기록부의 관리 대상으로 학생입장에서는 활용 가능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봉사학습적인 요소도 포함하면서 봉사활동의 질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지방활동진흥센터의 봉사활동 지원업무를 중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봉사활동 자원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특히 참가자들의 실적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통해 학교와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

■ 4-4.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학교 수요 개발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 또는 청소년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참여 사업에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의 정책개발 과정이나 지역의 현안에 대한 시민감시활동, 지역의 문화개발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는 지역활동의 정보를 학교에 제공한다. 학교에서는 사회과, 재량활동 중 시민교육활동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실제 지역의 정책이나 현안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 4-5. 지역단위 청소년참여동아리 운영

청소년정책으로 추진되는 지역단위 청소년참여활동 조직으로 지역사회 단위의 참여활동 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학교단위의 지역참여 활동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와 공동사업으로 지역주민으로서의 의식과 적극적으로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단, 참여의 범위에는 시정참여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 참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의 경험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추진과제5. 학교 진로교육활동 프로그램 연계-지원

■ 5-1. 진로교육전문가 학교연계 지원

일선 학교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수요는 증대하나 현실적으로 학교 교사들이 미래의 진로교육을 담당하기에는 직업의 경험 여부 등 한계가 있다.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회원 또는 지역의 전문직업인, 직업 컨설턴트, 진로교육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한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학교 진로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가를 학교와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5-2. 학교-지역사회 직업체험기관 연계 사업

지역의 수요에 따라 필요시 청소년수련관에 직업체험을 위한 전문공간과 설비를 구축한다(사례:서울수서청소년수련관의 직업체험실 등 참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수련관 등이 지역사회 청소년직업체험 전문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단위로 특화시설인 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노동부에서 성남에 건립중인 직업체험센터 및 기존의 청소년직업전문 시설을 지원의 중심기관으로 연계한다. 지역단위로 기존의 청소년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관과 신규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섭외하여 지원풀을 개발한다. 각 지역단위로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수요를 파악한다. 학교의 요구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간의 프로그램 연계나 업무연계, 인적자원 교류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 5-3. 진로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학교라는 공간 여건상 실제 사회의 직업이나 미래의 변화에 대한 체험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 학교와 협력을 통해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프로그램 자원을 제공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실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준비, 진로에 따른 학업의 설계, 가상적인 직업분야의 체험, 학교 밖의 직업인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학교에서의 진행과 학교 밖에서의 진행은 공간여건, 시간여건 등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학교의 교실 여건에 적합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추진과제6. 청소년의 진로개발 체험활동 연계-지원

■ 6-1. 분야별 전문직업 멘토 풀 구축

기존에 추진하였던 청소년 직업상담 인력 사이트를 참조하여 다양한 인적 자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직업 멘토 풀을 구축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나 지역사회 단위에서는 1:1의 실제 연계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실행한 IT전문가와 청소년의 직업멘토 연계 프로그램 등의 사례를 참조). 특히 청소년단체에서는 단체의 성인회원을 중심으로 직업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다.

■ 6-2. 직업체험을 위한 청소년기관의 인턴십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을 포함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청소년들의 직업체험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소년단체나 시설로 한정될 경우 경험할 수 있는 직무에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기관에서의 인턴십은 청소년분야 직무와 함께 직장에서의 자세, 공공서비스 분야의 직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다른 기관들이 청소년직업체험 인턴십에 참여하도록 연계망을 운영한다,

■ 6-3. 진로개발 활동참여 경력기록부 운영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외에 자율적으로 체험하는 자기 개발의 과정을 포트폴리오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책자형 기록부나 온라인 시스템 등 적합한 방식을 활용하며 자신의 미래와 진로개발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지 전 과정의 기록을 담게 한다. 이를 통해 진학과 취업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케 한다. 학교생활기록부나 입학사정관제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추진과제7. 이행전략-사업화를 위한 추진방안

■ 7-1. 지역단위의 제도적 운영 기반 구축

청소년인프라 자원과 학교 교육과의 연계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단위의 정책기반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의 조례 제정, 지역단위 협의체 조직, 행정당국간의 업무협의체제 등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지역의 교육정책 또는 청소년정책 수립시 양 부문의 연계 협력을 위한 공동의 사업을 장기 또는 연간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실행 인력을 편성해야 한다.

■ 7-2. 지역단위 학교연계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시·도 단위로 설치되어 있으나 시·군·구 단위로 확대를 하여 기초단체의 활동 지원은 물론 학교 연계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청소년활동진흥법제9조). 지방센터에 학교연계지원센터의 기능을 부여하거나 학교와 공동으로 지역단위 학교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들과 학교의 공동사업,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 7-3. 시범지역사업을 통한 추진모형 제안

현재 전반적으로 청소년자원 부문과 학교교육 부문의 연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며 전국적인 활성화도 장기적인 과제이다. 더 문제는 실제 연계방안에 대한 사례를 다양하게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로 청소년자원이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허브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시범지역 사업을 전개하여 전국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 7-4. 학교대상 청소년자원정보시스템 운영

학교에서 청소년자원을 비롯하여 지역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정보와 홍보의 부족이다. 교육청 등에서는 지역의 현장체험학습 장소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에게 적극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 청소년정보시스템 구축을 활성화하면서 특화사업으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정보DB와 정기적인 제공과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

■ 7-5. 청소년활동 경험의 진학시스템 연계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 기록, 봉사활동 기록, 자기 진로의 개발노력 등 다양한 활동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개인을 위한 포트폴리오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활동 경험에 대한 포트폴리오 관리 시스템을 지역화 또는 전국화하여 누구나 자신의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수련활동인증제, 에딘버러성취포상제와 같은 프로그램과 연계된 실적 뿐만 아니라 모든 기록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 7-6. 청소년 프로그램 품질 관리 체계 구축

청소년 부문의 자원들에 대한 수요는 일차적으로 경험하는 프로그램의 질적인 수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품질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실행중인 수련활동인증제를 통한 인증관리시스템과 함께 높은 수준의 품질을 가진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확대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기금공모사업과 같이 정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평가관리-인센티브 지원 방식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품질개선을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 7-7. 단계적 전략 개발을 통한 로드맵 구상

청소년 인프라 자원과 학교 교육을 연계하는 정책방향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일방적 제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다. 현재 학교교육 차원에서도 지역사회 중심의 학교,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되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을 기반으로 실제적인 연계 방안과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는 보다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한 일이다. 전국 단위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로드맵도 중요하지만 지역단위로 실제 구성원들이 모여 지역단위의 로드맵을 구상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단계적이면서 실제 지역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연계사업이 추진되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4. 연계 · 협력을 위한 현안 추진과제

2009년 11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제8차교육과정을 대신한 미래형교육과정 개편의 막바지 작업 중이다. 이미 그 주요내용은 앞서 소개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많은 대학에서 입학사정과제를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다. 토한 진로교육 종합계획도 마련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아동 · 청소년 인프라의 활용없이는 성패를 가능하기 힘든 상황이다. 교육분야의 체험 · 봉사활동 인프라가 일천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러한 정책들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앞선 장에서 지역사회 단위에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과의 연계 · 협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현안 추진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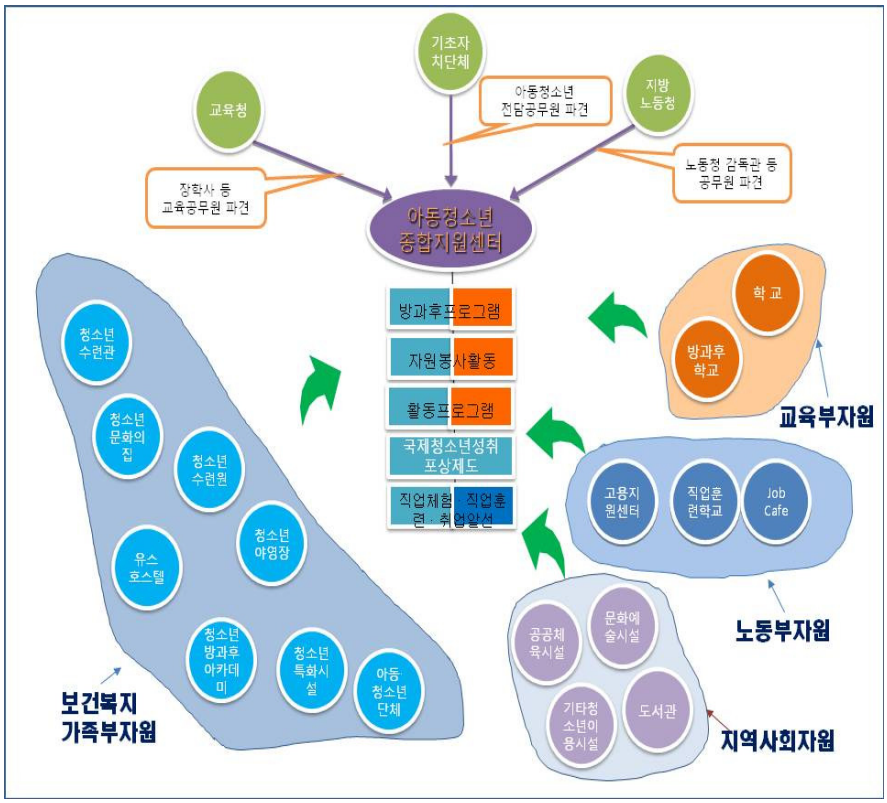
1) 지역사회 단위 연계·협력 지원 통합운영체계 구축

청소년활동의 결과가 교과과정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과 미래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통합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단일한 기관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통합운영체계의 구축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지원을 위한 기관을 신규 설립 하거나 지역 대표기관 지정을 통하여 통합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프로그램사업」, 「자원봉사활동사업」,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도」, 「자원봉사활동사업」, 「직업체험 및 훈련, 취업알선 사업」 등을 총괄할 수 있다.

통합운영체계는 학교, 직업훈련학교, 각종 청소년시설 등 아동 · 청소년의 교육-활동-역량 지원을 위한 사회자원 연계체제를 말한다. 중앙은 한국청

소년진흥센터, 16개 시·도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담당하며, 시·군·구는 가칭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전담공무원, 교육청의 장학사 등 교육공무원, 지방노동청의 노동청 감독관 등 공무원을 파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네트워크 구심점 역할을 하며, 학교교육과 청소년정책의 연계·협력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지역사회 단위 연계·협력 지원 통합운영체계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2)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시스템 연계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미래형 교육과정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체험 및 봉사활동 기록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입학사정관들이나 일선 교사들은 현재의 학생봉사활동처럼 청소년들의 포트폴리오를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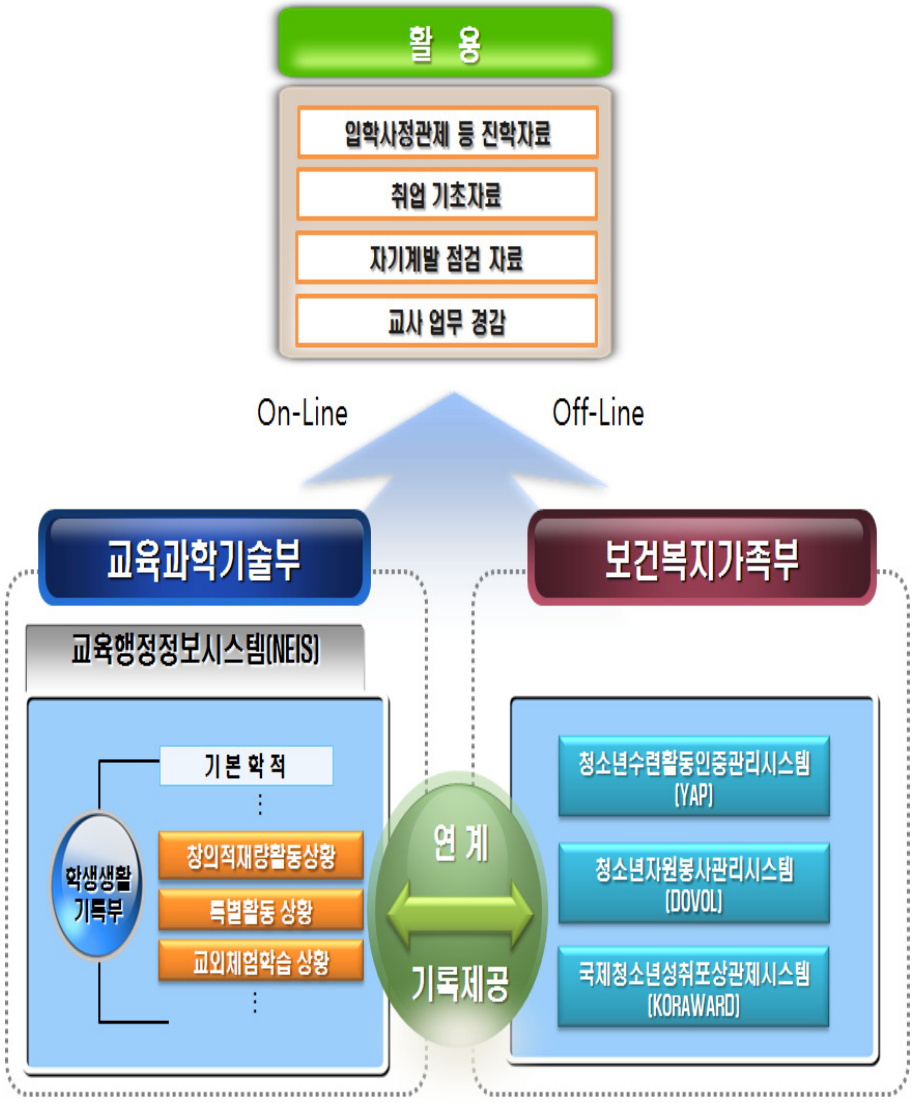
따라서 청소년 체험 및 봉사활동의 철저한 관리로 성공적 미래형 교육과정 기반을 구축하고, 입학사정관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할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명의로 수여하고 있는 청소년분야 청소년활동 관리시스템과 교육과학기술부의 NEIS를 연동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다양한 체험 및 봉사, 동아리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관리시스템 연계 가능분야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 기록 · 관리 시스템(YAP), 국제청소년성취포상 기록 · 관리 시스템(KORAWARD),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기록 · 관리 시스템(DOVOL), 청소년참여포털 정보시스템(WITHYOUTH), 청년방과후아카데미 정보시스템(YOUTH ACADEMY)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 기록 · 관리 시스템(YAP)은 2006년 5월부터 구축 ·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2009년 10월 현재 33,870건의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 기록 · 관리 시스템(KORAWARD)은 2009년 10월 현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2010부터 기록 · 관리에 들어간다.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기록 · 관리 시스템(DOVOL)은 1997년부터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기록을 누적하여 관리하고 있다. 기타 청소년참여포털 정보시스템(WITHYOUTH),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정보시스템(YOUTH ACADEMY)도 누적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시스템 연계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MOU와 시스템 연계 담당자 연석회의를 통하여 실무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최대 이슈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내용들은 공문, 안내책자, 홈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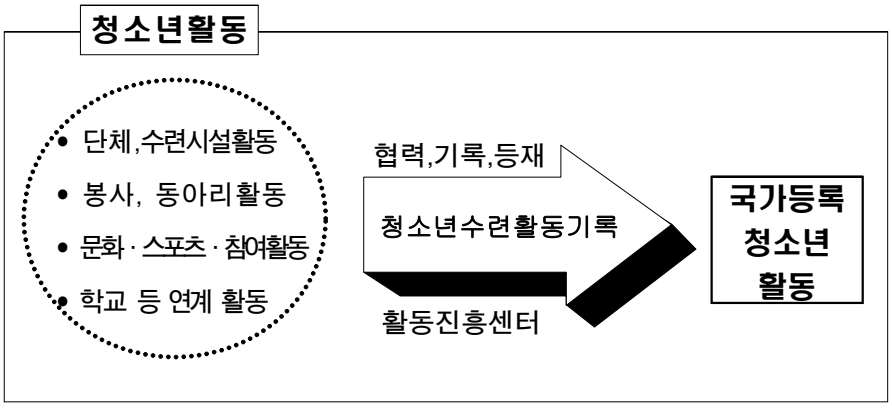
이지 배너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연계체제 구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시스템 연계 방안

3) 다양한 청소년활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앞서 제기한 기록 · 관리시스템 연계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청소년활동기록의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활동의 보편성 확보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타 청소년관련 정책과의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 등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활동인증제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통합 청소년활동기록제로 확대 · 강화가 요청된다. 국가등록 통합 청소년활동 기록 · 관리체제는 [그림 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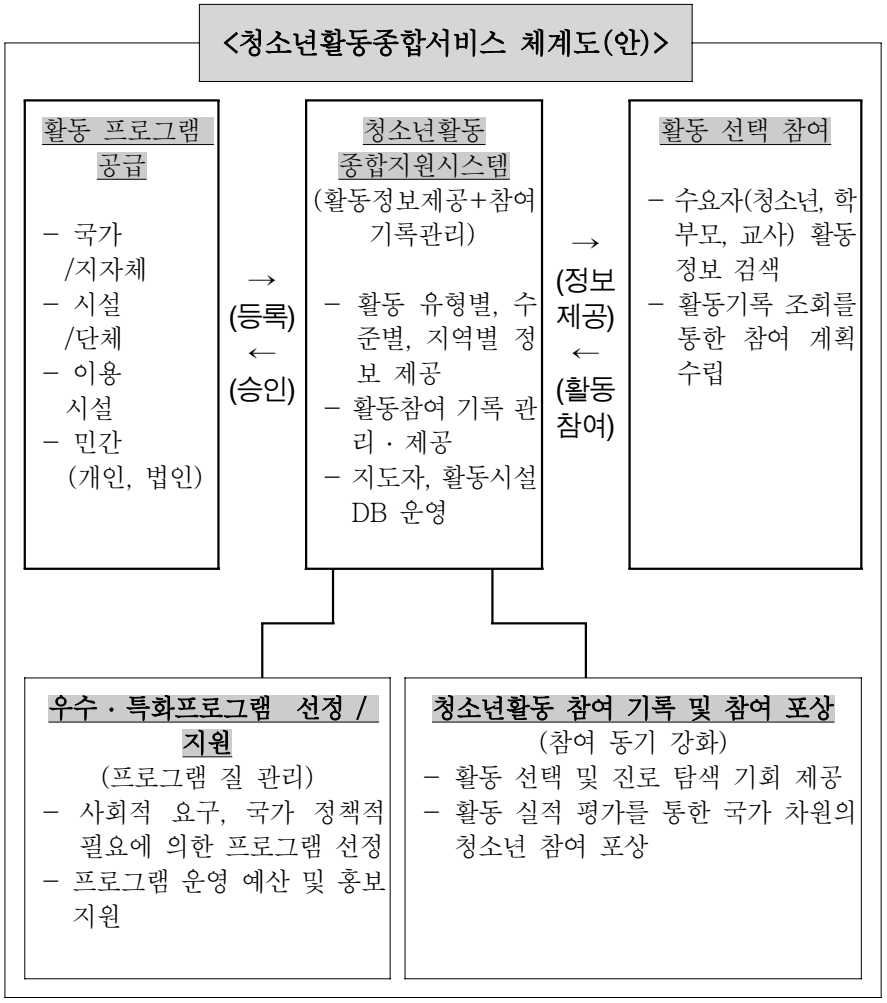


[그림 13] 국가등록 통합 청소년활동 기록·관리체계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2009)

현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이 소수 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의 미래형교육과정, 입학사정관제 등의 제도와 연계시 대두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 개인의 경우 스스로 활동 참여에 대한 포트폴리오 계획을 세워 결과에 대해 관리하도록 수요자 입장에서의 배려 차원에서 통합활동기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활동기록시스템을 통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상호연계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등록 · 관리와 참여 청소년의 활동기록관리를 통합한 가칭 청소년활동종합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종합서비스 체계도(안)은 다음과 같다.



[그림 14] 청소년활동종합서비스 체계도(안)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2009)

4)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자원맵 공동개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미래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적용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청소년들이 참가할 체험, 봉사, 동아리활동 프로그램의 확대 개발 · 보급이 필요하다. 기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인프라로는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에는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발전적 연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위한 신규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학생청소년들의 교육적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는 교육분야의 장점이 있고, 프로그램개발의 전문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청소년분야에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자원맵의 상당부분이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관되어 있어 공동으로 자원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터전 및 활동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중앙 및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이 현실적이다. 이 협의체를 통하여 중앙 및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지역사회자원맵을 공동 작성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기관, 시설, 단체의 프로그램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봉사, 동아리, 기타활동 영역의 발전적 연계를 도모하며, 신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제시한 아동 · 청소년활동지원센터가 갖추어진다면 여기에서 이 역할을 담당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지역사회자원맵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청소년분야와 교육분야의 공동 노력으로 청소년 인성함양 및 미래 인적자원개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교육분야는 청소년기관 · 시설 · 단체를 활용한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청소년분야는 학교와의 연계 ·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및 기관 운영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5) 교육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재편

미래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변경 및 기능재편이 필요하다. 교육과정과의 연계 · 협력은 국민이 공감하는 수요자에 친밀한 명칭과 내용을 지녀야 한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등으로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으며, 시설별 기능중복, 관할지역 중복 등 비효율적 운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도 창의적 체험

활동과 보다 긴밀한 지역사회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명칭 자체도 수요자인 청소년과 국민에게 친숙하지 않아 가깝고 친숙한 명칭으로의 변경이 요청된다. 예를 들면 수련시설은 활동시설 등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센터 등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6) 기타 현안 이슈

(1)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통합 운영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현재 상태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것인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하위 제도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통합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두 제도를 비교해보면 미래형교육과정, 입학사정관제와의 연계 · 협력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체제가 어울린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다년간의 성취수준을 기록 · 관리하기 때문이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장점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수용하면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가져가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제도의 체계화

미래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인정은 교육 분야의 기준에 적합한 활동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기본적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자,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이 주요 요소이다. 이를 청소년활동에 비교하여 보면 교육자는 청소년지도사, 교육과정은 활동프로그램, 교육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 프로그램만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대상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 수준의 청소년지도사 양성이 필요하다.

우수한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관련 학과 졸업생은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2급과 3급 청소년지도사를 취득할 수 있어 최근 급격하게 청소년지도사 배출율이 늘어나고 있어, 제대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지 못하는 대학의 졸업생에게까지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인식이 늘고 있으며, 실제 청소년지도사의 질적 수준의 저하를 체감할 수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관련학과 교육과정의 표준화, 청소년학 관련 교재의 전면 재구성, 청소년관련 학과 졸업생 필기시험 면제 제도에 대한 재검토,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과정의 재편, 청소년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현장실습 의무화 및 강화 등의 고려들이 필요하다.

Ⅵ. 요약,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Ⅵ. 요약, 결론 및 경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교육정책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 인프라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 분석, 최근 추진되는 있는 주요 교육정책 분석 및 연계 · 협력을 위한 시사점 탐색, 아동 · 청소년인프라와 학교의 연계방안 제시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전문가 포럼(미인계: 미래인재개발계획), 정책협의회 등을 실시하였다.

첫째, 아동 · 청소년정책과 학교연계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 분석, 주요 교육정책 분석을 위하여 관련 문헌들을 탐색하였다.

둘째, 연계 · 협력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정책과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셋째, 학교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인프라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인프라 학교연계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정책 및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자원봉사제도 등은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 콘텐츠 충실화의 문제, 전형요소로 바로 활용의 어려움, 사무국의 예산과 인력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인적자원연계분야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학교의 폐쇄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설 및 단체분야에서는 상호인식이나 정보의 부족, 프로그램의 질적 문제, 역시 학교의 폐쇄성, 지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둘째, 연계 · 협력의 기본원칙과 정책과제 개발방향을 설정하였다.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인프라 학교연계의 기본원칙을 동등성의 원칙, 상호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차별성의 원칙, 개방성의 원칙 등 5가지를 설정하였고, 연계 · 협력을 위한 정책추진과제 설정의 기본방향은 미래지향적 관점의 유지, 실제적인 요구와 수요 중심, 학교지원을 위한 대안제시, 체험활동의 차별성 확보,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 유지, 학교의 특성 이해 우선 등의 6가지로 설정하였다.

셋째, 연계 · 협력을 위한 추진과제는 학교내 교육활동지원, 학교밖 체험활동지원, 미래개발지원, 사업화지원체제 등의 4가지 영역을 청소년인프라 자원유형인 인적자원, 기관자원, 프로그램자원 등 3가지 영역에 맞추어 총 12개 분야 32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32개 세부과제는 학교내 교육과정 운영 연계 · 지원 4과제, 학교내 방과후 교육 운영 연계 · 지원 3과제, 학교밖 체험활동 운영 연계 · 지원 7과제, 지역사회 참여활동 연계 · 지원 5과제, 학교 진로교육활동 프로그램 연계 · 지원 3과제, 청소년의 진로개발 체험활동 연계 · 지원 3과제, 이행전략 · 사업화를 위한 추진방안 7과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넷째, 교육정책과의 연계 · 협력을 위한 현안 추진과제는 지역사회 단위 연계 · 협력 지원 통합운영체계 구축,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시스템 연계, 다양한 청소년활동 통합 기록 · 관리시스템 운영,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자원맵 공동개발, 교육과의 연계 · 협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재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통합 운영,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제도의 체계화 등 7가지를 제시하였다.

2. 정책제언

이 보고서는 V장에서 제시하였듯이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인프라와 학교교육정책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종합 정책과제와 주요 현안 정책과제로 따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현안 정책과제들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새롭게 시도하는 미래형교육과정, 입학사정관제, 방과후학교, 국가진로교육정책 등과 긴밀한 연관이 있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다.

1) 연계·협력을 위한 종합 추진과제 (7분야 32개 추진과제)

추진과제1. 학교내 교육과정 운영 연계-지원

1-1. 특별활동전문지도자 파견사업
1-2. 청소년단체의 특별활동 지원 확대
1-3. 시설유형별 특별활동 지원특화사업
1-4. 창의재량(범교과)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추진과제2. 학교내 방과후 교육 운영 연계-지원

2-1. 방과후 특기적성활동 전문지도자 연계
2-2. 청소년수련관-방과후학교 포괄적 협력체제 운영
2-3. 방과후학교용 프로그램 자원 공유

추진과제3. 학교밖 체험활동 운영 연계-지원

3-1. 학교연계형 현장체험활동 전문가 양성 지원
3-2. 지역사회단위 체험활동연계망 운영
3-3. 청소년수련원 연계 전국야외체험활동 코스 운영
3-4. 학교-전문단체 결연지원 사업
3-5. 프로그램 참여실적의 학교 연계 활성화

3-6. 학교연계형 지역단위 프로그램 뱅크 운영
3-7. 지역단위 청소년클럽활동 운영

추진과제4. 지역사회 참여활동 연계-지원

4-1. 지역사회 단위 학교지원 전문지도자 배치
4-2. 학교-지역 기관과 연계의 허브로 수련관 기능 확대
4-3. 지역중심 청소년봉사활동 실적 관리
4-4.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학교 수요 개발
4-5. 지역단위 청소년참여동아리 운영

추진과제5. 학교 진로교육활동 프로그램 연계-지원

5-1. 진로교육전문가 학교연계 지원
5-2. 학교-지역사회 직업체험기관 연계 사업
5-3. 진로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추진과제6. 청소년의 진로개발 체험활동 연계-지원

6-1. 분야별 전문직업 멘토 풀 구축
6-2. 직업체험을 위한 청소년기관의 인턴십 운영
6-3. 진로개발 활동참여 경력기록부 운영

추진과제7. 이행전략-사업화를 위한 추진방안

7-1. 지역단위의 제도적 운영 기반 구축
7-2. 지역단위 학교연계지원센터 설치 운영
7-3. 시범지역사업을 통한 추진모형 제안
7-4. 학교대상 청소년자원정보시스템 운영

7-5. 청소년활동 경험의 진학시스템 연계
7-6. 청소년 프로그램 품질 관리 체계 구축
7-7. 단계적 전략 개발을 통한 로드맵 구상

2) 교육정책과의 연계 · 협력을 위한 현안 추진과제(7과제)

■ 지역사회 단위 연계 · 협력 지원 통합운영체계 구축

청소년활동의 결과가 교과과정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과 미래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통합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시 · 군 · 구) 단위에 기초자치단체의 아동 · 청소년전담공무원, 교육청의 장학사, 지방노동청 감독관 등을 파견하여 공동운영하는 가칭 아동 ·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시스템 연계

청소년 체험 및 봉사활동의 철저한 관리로 미래형교육과정과 입학사정관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명의로 수여하고 있는 청소년분야 청소년활동 관리시스템과 교육과학기술부의 NEIS를 연동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다양한 체험 및 봉사, 동아리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다양한 청소년활동 통합 기록 · 관리시스템 운영

기록 · 관리시스템 연계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청소년활동기록의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활동의 보편성 확보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타 청소년관련 정책과의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 등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활동인증제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통합 청소년활동기록제로 확대 · 강화가 요청된다.

■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자원맵 공동개발

청소년분야와 교육분야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지역사회자원맵과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교육과의 연계 · 협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재편

미래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변경 및 기능재편이 필요하다. 교육과정과의 연계 · 협력은 국민이 공감하는 수요자에 친밀한 명칭과 내용을 지녀야 한다.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통합 운영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현재 상태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것인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하위 제도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통합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제도의 체계화

미래형교육과정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청소년관련학과 교육과정의 표준화, 청소년학 관련 교재의 전면 재구성, 청소년관련 학과 졸업생 필기시험 면제 제도에 대한 재검토,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과정의 재편, 청소년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현장실습 의무화 및 강화 등의 고려들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바로알기. 교육과정 심의회 참고자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1998), 제7차교육과정-중학교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2006). 방과후 학교 관련 내부자료.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09). 미래형 교육과정(안). 제8차 국민대토론회 자료집.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2006 청소년백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2007 청소년백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김수동 · 김정주(2004), 국내외 방과후 교육활동 사례 수집 및 분석·유형화, 서울: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영인 · 김민(2008). 청소년지도방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김재일(2004). 창의적 재량활동과 청소년수련관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배 외(2001). 청소년 자원봉사 연계협력 증진 방안 연구: 청소년 자원봉사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서울: 문화관광부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화관광부(2004). 2004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2007). 지역아동센터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아동 · 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활동진흥과(2008). 아동 · 청소년활동진흥계획(안). 미간행 내부자료.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청소년진흥센터(2009).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기능 연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양계민 외(200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만족도 조사연구. 서울: 한국청소

년진흥센터.
양철승(2006). 학교내 청소년단체활동의 도전과 개선방향. 제42회 청소년 정책 연구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이광호 · 김안나 · 전명기 · 홍생표(1999),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교육부.
이광호 · 이태제 · 윤철경(1999), 학교 특별활동과 지역사회 수련활동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광호 · 전명기(2002), 학교 주5일제에 대비한 청소년수련활동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은성 · 전명기 · 김혁진 · 임승배(2003), 선택적 체험학습 인프라 구축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국회교육위원회.
이민희 외(2005).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방안 연구 :청소년활동의 연계・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재분 외(2008).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연수 프로그램. 한국교육개발원
전희일(2003). 청소년수련관 수련활동과 학교 특별활동의 연계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영승(1999). 청소년육성과 학교교육 연계의 방향. 청소년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천정웅(1999). 청소년정책의 발전과 특성. 한국청소년학회(편). 청소년학 총론. 양서원
천정웅・김정주(1999). 청소년육성과 학교교육의 연계 방안. 청소년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위원회(2005). 2005 청소년백서.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 ·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청소년정책 비전과 발전방향. 서울: 청소년위원회 · 한국청소년개발원.
최상덕(2006). 변화된 학교교육환경과 청소년단체활동 추진방향. 제42회 청소년정책 연구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최창욱(2007).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청소년수련관과 학교의

프로그램 연계 활성화. 청소년수련시설관계자 창의 워크숍 자료집. 서울: 서울특별시.
통계청(2007). 장래인구추계.
한국교육개발원(2009).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워크북.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8).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침서 개발 연구.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2009. 5. 9). http://www.kcue.or.kr
한국아동단체협의회(2009). 회원단체 현황. http://www.kocconet.or.kr
한국청소년개발원 편(1995). 교육개혁과 청소년육성정책.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편(2006). 학교와 청소년단체 연계활동의 전망과 과제. 서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미래세대 사랑나누기 빅뱅 전략. 미간행 내부자료.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2009a).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입학사정관제의 연계방안. 미래인재개발계획(미 · 인 · 계) 전문가 1차포럼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2009b).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와 교육정책의 연계. 미래인재개발계획(미 · 인 · 계) 전문가 1차포럼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상철 · 이채식 · 이상진(2007). 청소년활동 시설 및 지역사회 방과 후 활동 연계 프로그램 개발. 충남: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한상철 외(2001). 청소년지도론. 서울: 학지사.
함석동(2007). 한국의 방과후활동의 한 유형으로서의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71-91.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09-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Ⅶ :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이경상 · 안선영

09-R01-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Ⅶ : 생활긴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09-R0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Ⅶ :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안선영 · 장원섭

09-R01-3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Ⅶ : 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 김지경 · 안선영 · 이계오 · 이미리 · 김성식 · 김명희 · 박일혁

09-R02 아동 · 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 김형주 · 김영애 · 조선하

09-R03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 · 김성언

09-R03-1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개발 / 김지연

09-R04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최창욱 · 송병국 · 김혁진

09-R0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 · 박병식

09-R06 아동청소년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물리적 위해를 중심으로 / 김영한 · 최은실

09-R07 위기가정 아동 · 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 빈곤한 한부모 · 조손가정 아동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이혜연 · 이용교 · 이향란

09-R08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 백혜정 · 방은령

09-R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변동 전망II / 이종원 · 김영인

09-R10 아동 · 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임희진 · 박형란

09-R11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이기봉 · 설수영 · 원형중 · 설민신

09-R12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IV : 청소년 진로 · 직업 지표 / 최인재 · 김봉환 · 황매향 · 허은영

09-R12-1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IV : 아동 · 청소년 활동 · 문화 지표 / 임지연 · 김정주 · 김신영 · 김민

09-R13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 : 생존 · 보호권 인권실태조사 / 모상현 · 김희진

09-R13-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 : 생존 · 보호권 정량지표 / 모상현 · 천정웅 · 신승배 · 이중섭

09-R14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 · 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I / 양계민 · 조혜영 · 이수정

09-R15-1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 / 문경숙 · 윤철경 · 임재훈

09-R15-2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청소년 조기유학의 결과와 정책방안 / 윤철경 · 문경숙 · 송민경

09-R16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 황진구 · 김진호 · 임성택 · 주동범

09-R16-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문성호 · 임영식 · 문호영 · 김남정 · 한지연

09-R16-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박영균 · 김동일 · 김성희

09-R16-3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 이민희 · 강병로

09-R16-4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연구 :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 최순종 · 윤옥경 · 조남억

09-R1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 이창호 · 오해섭

■ 협동연구과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1**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박영균 · 박은혜 · 이상훈 · 최은영 · Elmar Lange (자체번호 09-R18)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2**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 · 청소년 가족 지원방안 / 서정아 · 조흥식 · 김진우 (자체번호 09-R18-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3**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교수 · 학습활동 지원정책 / 박재국 · 정대영 · 황순영 · 김영미 · 김혜리 (자체번호 09-R18-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4**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 · 청소년의 심리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 현주 · 박현옥 · 이경숙 · 김민 (자체번호 09-R18-3)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5**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문화예술 · 체육활동 지원방안 / 김종인 · 김원경 · 고정욱 · 오이표 (자체번호 09-R18-4)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6**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 권선진 · 이근매 · 조용태 (자체번호 09-R18-5)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총괄보고서 / 김기헌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지적 도구 활용 영역 / 최동선 · 김나라 · 김성남 (자체번호 09-R19-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 · 김낭항 (자체번호 09-R19-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4**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헌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3)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5**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사고력 영역 / 조아미 · 김정희 · 설현수 · 정재천 (자체번호 09-R19-4)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6**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총괄보고서 부록 / 김기헌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5)

■ 수시과제

09-R20 경제 위기에서 빈곤 아동 · 청소년의 생활실태 / 모상현 · 김영지 · 김희진 · 정익중

09-R21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
김광웅 · 이종원 · 천정웅 · 이용교 · 길은배 · 전명기 · 정효진

09-R22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한상철 · 서정아 · 길은배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철웅 · 방은령 · 송민경 · 송병국 · 오승근 · 유진이 · 조아미

09-R23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생성을 위한 기초 연구 /
김기헌 · 홍세희 · 설현수 · 유성렬 · 정익중

09-R24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 백혜정 · 정익중 · 박현선 · 천창암 · 박현동

09-R25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조사 / 김승경 · 김지경 · 성윤숙

09-R26 한 · 중 · 일 고교생의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
김진숙 · 임희진 · 김현철 (2010년 발간)

09-R27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아동 · 청소년 생활시간 연구 / 김희진 · 진미정 (2010년 발간)

09-R28 교육봉사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 정책 시범연구 /
모상현 · 김성희 · 박영숙 · 이명균 (2010년 발간)

■ 용역과제

09-R29 2009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자립 실태조사 /
이경상 · 임희진 · 안선영 · 김지연 · 강현철 · 김광혁 · 김기남 · 박창남

09-R30 2009 소외계층 아동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 백혜정

09-R31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 김영지 · 성윤숙

09-R32 200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조혜영

09-R33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조사 / 장근영 · 이종원

09-R34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이창호

09-R3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 오해섭 · 박진규 · 박정배

09-R36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편람 개발연구 / 황진구 · 김미숙

09-R37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김기헌 · 안선영 · 장상수 · 김미란 · 최동선

09-R38 통합 아동 · 청소년정책 추진전략연구 /
윤철경 · 박영균 · 성윤숙 · 문경숙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30개 기관

09-R39 형사조정실무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최창욱 · 박수선

09-R40 2009 아동 · 청소년백서 / 김기헌 · 김지경 · 임희진

09-R41 열린장학금 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 최창욱 · 이기봉 · 최인재

09-R42 청소년관련학과 현장실습 교육과정 표준 매뉴얼 개발 / 맹영임 · 전명기

09-R43 2009 서울시 청소년 문화 ·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 · 김형주 (2010년 발간)

09-R44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체계 효율적 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 · 이혜연 · 서정아 · 홍연균 · 유진이 · 김영호 · 김광남 · 황성수(2010년 발간)

09-R45 청소년 사이버멘토링 효과성 연구 / 조혜영 · 양계민 (2010년 발간)

09-R46 공공-민간협력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 김지연 (2010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09-s0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4차 워크숍 (1/21)
09-s0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2/27)
09-s03 청소년 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3/12)
09-s04 아동 · 청소년 권리지표 및 지수개발을 위한 워크샵 (4/11)
09-s05 녹색성장 강화와 글로벌 인재개발 전략 (4/16)
09-s06 독일의 장애아동 · 청소년 지원 정책 (5/25)
09-s0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개발전략 (6/25)
09-s0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콜로키움 자료집 (7/8)
09-s09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및 운영체계 개발 (6/26)
09-s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아시안 아메리칸의 인종적 경험 (7/14)
09-s11 2009 서울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위원 워크숍 (7/20)
09-s12 아동청소년조기 유학 적응과 글로벌 역량개발 (7/21)
09-s13 아동청소년 생활 패턴과 역량강화 세미나 (7/22)
09-s14 선진국의 장애아동 · 청소년 지원정책 국제세미나 (8/28)
09-s15 2009년 한국청소년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론세미나 자료집 (8/26)
09-s16 다문화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8/25)
09-s17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워크숍 (9/18)
09-s18 형사화해 조종실무가(조정위원)연수 자료집 (10/7)
09-s19 아동 · 청소년 활동문화 현황 과제 (10/15)
09-s20 한 · 일 청소년 연구포럼: 노동·교육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한일 비교 (10/27)
09-s21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현황과 정책방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9)
09-s22 한국 청소년 진로 · 직업 실태 및 향후 전망과 정책적 과제 (11/6)
09-s23 여성 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11/10)
09-s24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11/18)
09-s25 청소년 관련학과 현장실습 매뉴얼(안) 개발 및 효율성 제고 방안 (11/18)
09-s26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지원방향과 과제 (11/19)
09-s27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 대회 (11/27)
09-s2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11/22)

■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5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5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통권 제5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55호)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NYPI YOUTH REPORT 창간호 : 경제위기와 빈곤 (4월)

NYPI YOUTH REPORT 2호 :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6월)
NYPI YOUTH REPORT 3호 : 글로벌 환경변화 청소년 (8월)
NYPI YOUTH REPORT 4호 :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10월)
NYPI YOUTH REPORT 5호 : 청소년 인권 (11월)
NYPI YOUTH REPORT 6호 :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12월)

연구보고 09-R04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인 쇄 2009년 12월 22일
발 행 2009년 12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경성 전화 (02)503-3223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77(연구기획팀)
ISBN 978-89-7816-782-6(93330)